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61호 | 2023 봄 호

# 세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글 | 테마원고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수기 | 소감문 | 서간문 | 감상문

2023 | 분  
행 권 4 6 1 | 회

# 세 기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23년 봄호 (통권 461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3년 3월 13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최국진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363

\* 원고는 각 교정기관 담당자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목차

### 직원 글

- 04 내게 와줘서 고맙다 | 정읍교도소 교위 안상현
- 05 이 또한 지나가리라 | 논산지소 교위 조도현

### 테마원고 - 고향의 봄

- 07 고향의 봄, 엄마의 봄 | 이석호
- 08 나의 고향 내 봄 | 조경화
- 09 늦봄 마중 | 김지남
- 10 땅따먹기 | 김아현
- 11 고향의 봄 | 조현철
- 12 고향이 내게 봄을 물었다 | 이상진
- 16 부모님의 사랑은 나의 고향, 따스한 봄 | 장현주
- 18 고향의 봄 | 김수일
- 21 고향의 봄 | 김애경
- 23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곳의 봄 | 이경로
- 26 고향의 봄! | 배소영
- 28 고향의 봄을 그리워하며 나에게 묻는다 | 박영규
- 31 고향의 봄 | 방희경
- 34 고향의 봄 | 정하동
- 37 나의 아버지와 고향의 봄 | 지만선
- 41 고향의 봄(아버지와외의 봄날) | 오민경

### 수필

- 43 곧 봄이 옵니다 | 정진우
- 46 바느질하는 남자 | 신영철
- 49 영광의 산업기사 2년 과정을 마치며 | 김효기
- 52 나의 59해의 아주 특별한 외출 | 정의옥
- 55 봄을 기다리며 | 안정훈

### 기획기사

- 57 조선인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불로장생의 염원 - 십장생도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 용서의 글

- 65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 박준신
- 67 용서의 글 | 조옥순
- 69 용서를 구합니다 | 김진혁
- 71 어머니, 죄송합니다 | 유병훈
- 73 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김봉성
- 76 용서를 구합니다 | 심명보
- 78 용서 | 이상봉
- 81 용서를 구합니다 | 박호현

## 시

- 83 봄비 | 이공성
- 84 무지개 종묘사 | 박정주
- 85 어릴 적 놓친 풍선 | 유승화
- 86 호박꽃 | 정정식
- 87 당장이라도 | 양희범
- 88 해, 바라기 | 이호윤
- 89 행복한 바둑 | 구자광
- 90 봄 나그네 | 박중수
- 91 민들레 | 주진우
- 92 봄의 바위 되어 | 김명필

## 독후감

- 93 『천원을 경영하라』를 읽고 | 이정승
- 96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회계책』을 읽고 | 민경근
- 100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를 읽고 | 이태희
- 103 『커피인문학』을 읽고 | 변재현
- 106 『더 해빙』을 읽고 | 박현준

## 수기

- 109 내려놓는 삶 | 허상실
- 111 인사=감사 | 김유리
- 113 그림다 쓱국아, 쓱떡아 | 송현윤

## 소감문

- 115 정민 교수의 세설신어 400선 『점검』을 읽고 | 임동표
- 118 교육 소감문 | 김금섭

## 서간문

- 120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딸에게 | 정영일
- 122 보고 싶은 아버지 | 이보람

## 감상문

- 124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 홍가람
- 127 '새길' 겨울호를 읽고 | 조성신



직원 시

# 내게 와줘서 고맙다

안상현 | 정읍교도소 교위

겨울에 멈췄던 산새 울음  
여기저기서 울리고 내 귀에까지 들리면  
슬그머니 고향의 산을 오른다.

대지는 아직 무르고 바람은 차지만  
재촉하고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온다  
천천히 또 천천히

수줍은 소녀이기에  
산과 들을 발갱게 물들이며 오는 것이다  
부끄럼 많은 처녀이기에  
밝는 땅마다 조용히 열이 나는 것이다

먼 옛날의 복적임도 친구들도 가고 없으나  
혼자 오른 고향의 산은  
여전히 아름답고 따뜻하다  
또 한 고비를 견뎌내었노라  
또 다시 희망을 걸고 걸어가겠노라

꽃 피고 온풍이 불어야만  
봄이 온 것을 알겠느냐  
오기 전에 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나에게  
그녀는 더 빨리 온다  
그리고 오래 머문다고 약속을 하지

네가 데우고 물들인 산야가  
눈부시게 예쁘다  
고맙다  
내게 와줘서

#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도현 | 논산지소 교위

일상에 찌들어 지쳐갈 즈음, 가족들과 함께 OO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저녁 일몰 즈음에 개천에서 분주히 먹이를 쪼아 먹으면서도 한가로이 날개를 말리고 있는 철새들을 보면서 문득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열정이란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자고 다짐해보는 시간이었다.

과거도 미래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어느 시간보다도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 과거에도 살아왔고 미래에도 살아가겠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도 존재하게 된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과거도 미래도 자산이 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현재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미래가 더 빛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산다. 희망은 판도라 상자의 바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존재한 것이지만 희망이 있었기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열정과 희망은 동전의 앞과 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절망에 쌓였다고 모두가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다. 바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했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결심을 한다. 날이 밝으면 ○○봉에 올라가 뛰어내리기로 말이다. 드디어 아침이 되고 그는 가슴에 유서 한 통과 물 한 병을 지니고 ○○봉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길을 잃고 헤매고 만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에 어둠은 내리고 ○○봉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결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서 집으로 내려왔다. “그래, 나에겐 열정이 부족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어느덧 중년이 된 그 젊은이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록 지금도 그때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만일 그때 길을 헤매지 않았다면 그래서 ○○봉에 오르고 뛰어내렸다면 어찌 되었을까? 남은 가족들과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했을 것이며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성공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며 살면서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결심한 그대여 부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기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차라리 나 같은 놈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대여! 남은 가족들과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래 말을 천천히 음미하며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天不生 無祿之人 (천불생 무록지인)  
地不長 無名之草 (지불장 무명지초)

- 명심보감 중에서 -

(하늘은 먹고 살 재물이 없이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세상에 내지 않는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먹고 살 것은 타고난다는 말)

# 고향의 봄, 엄마의 봄



이석호

엄마는 봄이 싫다고 했다.  
엄마는 고향의 봄이 지겹다고 했다.

하교 후엔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새 농사의 시작을 도와야 했고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가며  
동생들 뒷바라지로 밭에서 일해야 했다.

겨우내 사용했던 이불들을  
끔끔대며 발로 밟아 빨아야 했고  
가족들 식사준비와 설거지를 하면  
지쳐쓰러져 잠들어야 했다.

엄마에게 봄은 노동이었다.  
엄마에게 고향의 봄은 희생이었다.

그랬던 엄마가  
지금은 그 봄을 그리워한다.

힘들어도 복작대던  
고향의 봄을 그리워한다.

## 작품평

다들 기다리는 봄이 엄마에겐 노동과 희생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봄이 싫었을까요. 그 노고를 누가 헤아릴까요. 사람은 하난데 엄마의 이름은 여럿이어서 그 일 다 해내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가 그림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 나의 고향 내 봄

조경화

날 좋다는 경칩이 찾아와도  
산그늘에 숨은 계곡은 춥다.  
바위를 꼬옥 안은 얼음이불 아래서  
돌돌돌 흐르는 물소리가 나도  
아직 얼음은 단단하다.

그래도 봄이라 하여  
한뼘만 양지로 나가면  
한다발 가지런히 봄별이 세워져 따스하다.  
그 자리 흙고인 바위틈바구니  
서리에 들뜬 듯 부풀어 있는 그곳에  
노란꽃으로 얼음을 들어올리는 복수초에게  
속세떠난 수행자는 고개를 숙인다.

눈만 조금 쌓이면 적막강산 인기척도 없는 고향  
'라면 밖에 안남았네' 툭툭 대는  
늙어 귀농한 철안난 며느리 손을 잡고  
반송장 시어미는 텃밭으로 간다.  
다리도 무겁고 털슬리퍼도 무겁고 며느리는  
더 무겁다.

한발은 이승에  
다른 한발은 저승 땅에 딛고 살아도  
이 때쯤 문풍지 밀치고 드는 바람에  
같이 오는 단재를 안다.  
눈 조금 치우고 잎 넓은 낙엽 몇 장 틀면  
파릇파릇 버릇없이 자란 아이가 반긴다.  
잎이 꽃처럼 퍼있는 '꽃다지'란다.  
그냥도 향이 좋다. 참 예쁘다.  
마트파는 하우스 봄동보다 맛나다.

요새 봄은 아무도 몰래 오셨다가  
배웅없이 가신다.  
뭐 그리 바쁘신지.

내 고향 복수초 황당한 노란빛처럼  
데쳐서 박박무친 꽃다지 향처럼  
겨우내 시린가슴 돌돌돌 녹아내려  
저 아래 도도한 강처럼 흘러가자.  
벚꽃 흐드러져 물위에 동동 떠갈 때  
꼭 한 번 찾고싶은  
내 고향 내 봄아.

## 작품평

꽃샘추위는 한겨울 시샘만 같습니다. 마냥 따뜻한 별이 품고 있는 차가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툼한 눈더미 속에서도 가장 먼저 피어올라 봄을 알리는 노란 복수초에게서 배우는 마음, 꽃다지 앞에서 철없는 며느리와 늙은 시어머니의 풍경도 눈에 선합니다. 봄동의 향기가 전해져옵니다.



# 늦봄 마중

김지남

복사나무 수척해져 빗장 풀어 늦봄 받기니  
새벽 박명 파르스레 실오라기 피어올랐다.  
여우별 틈 사이 담연한 연듯빛 스며들어  
산그늘 포개안은 붓꽃 사색빛 차랑차랑 꿈틀댄다.

잘 왔다.  
누더기를 그만 벗자  
까슬까슬 마음 옷도 벗어놓자  
옷자락 그러잡은 자실 그림자 떼어놓고  
여기 놓인 자색 저고리 어서 두르자

저번 겨울, 나 누구에게 따뜻했나  
외려 골몰해 있었나  
코끝 앞에 봄별 죄니 곧 움트겠지  
백양산 처마 밑에 도홍빛 낭랑하네

고행길 떠난 아들 타향살이 좋지하니  
마중 걸음 토끼마냥 설레설레 가쁜하구나  
외로운 새 이जे야 동우리 들었나  
다음 봄도 춘색 들겠네

어서와라  
집에 잘 왔다  
자색 저고리 어서 두르자

## 작품평

봄은 꽃들이 가고 싶은 집이었네요. 자주색 저고리를 입은 목련도 봄을 향해 핍니다. 봄은 시작을 알리는 계절, 개학이 봄에 있는 것도 그런 거겠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 새롭게 시작하려는 용기가 일어서는 봄. 새롭게 꿈꾸는 계획 중에 지난 계절에 다 못한 것을 되돌아보는 여유도 있어 좋습니다.

# 땅따먹기

김아현

누룽지 송충 한잔 마시고 대접에 하나 가득 마시고  
저녁 일찍 들어오너라 하는 외할머니 목소리

하나 뛰기 하나 빼기 똥뚜껑 건너뛰기  
엿치기 잣치기 돌던지기 연날리기

연감에 감주에 밤알동동 띄워서  
설탕 한술 퍼가지고 휘휘 저어서  
꿀각꿀각 마신 뒤에 골목골목 뛰던 마당

이제는 다시 올 수 없겠지 그 이름은 고향  
나의 살던 내 고향 봄날의 고향.

## 작품평

어릴 적에 흙 마당에 선을 긋고 내 땅 네 땅 하며 땅따먹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놀이가 되어버렸네요.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그때 그곳이 고향 아니겠는지요. 아득한 시절에 벼이 있었고, 할머니가 계셨던 그곳이 고향 아니겠는지요. 그때가 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고향의 봄

바다에 안개꽃이 피어난다  
깊은 바닷속 잠들어 있는  
봄에 신령을 신령을 깨우는 안개꽃  
희미하게 신기루처럼 보이는 섬  
그 섬에서 따뜻한 남풍이 불어온다.

멀리 떠난 고깃배가 돌아오는 계절  
비릿한 생선 냄새가 조그만 어촌에  
봄의 향기로 채워진다.

빨간불 빛나는 머릿결 힘차게  
뛰어노는 꼬마 친구들에 야무진 함성  
봄에 생동감이 숨을 쉰다.

높이 나는 갈매기 낮게 나는 제비  
봄을 실은 남풍이 불어온다.

비릿한 냄새 꼬마들에 함성  
그렇게 봄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고향에 봄은 바다에서 부터 온다.

## 작품평

조그만 어촌에 사는 사람들에게겐 봄도 바다에서 오나 봅니다. 태양도 바다에서 떠오르듯이요. 안개꽃 사이로 신기루처럼 보이는 섬에 부는 남풍. 남풍을 신고 돌아오는 고깃배가 있어 봄은 더 풍성할 것입니다. 도시에선 보기 드문 제비도 날아오는 봄이라니 왠지 그리움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고향이 내게 봄을 물었다

이상진



내게 고향은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곧 고향이었고, 고향의 근원은 곧 어머니였다. 그곳의 계절은 언제나 싱그럽고 따스한 봄이었다. 고향의 젊음을 훌륭한 양분삼아 나는 건강하게 자랐다. 스무살 무렵이었다. 나는 누구인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향에게 물었다.

‘인생에는 역(逆)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향이 답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답이 나의 내면에서 파동했다. 점차 커진 파동은 내게 봄 이외의 다른 계절을 의문하게 했다. 의문은 차츰 결심이 되었고, 나는 고향에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계절을 느끼고 오겠다고 말했다. 아름답게 떨어지는 하얀 벚꽃 아래에서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슴에 담은 순례자처럼 준비했다.

채비가 끝난 후 슬퍼하는 고향과 작별 인사한 다음, ‘많이 그리울꺼예요.’라고 혼자 되뇌었다. 마치 찰랑대는 검푸른 바다의 표면만 보고 심해의 해류를 짐작하듯이,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계절은 홀로 떠나는 내게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 마음은 날지 못하는 대상에 관한 판단의 유보였다.

공기가 간지러웠다. 처음 만난 다른 계절은 여름이었다. 불볕더위 속에서 통증과 가까울 정도의 소양감을 느끼며, 온 몸으로 계절을 경험했다. 이윽고 삼일에 한번쯤 별이 나기는 했지만 길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다. 후텁지근하고 습기찬 대기안에서 호흡하며, 이 힘든



여정의 사직을 후회했다. 지저분하게 점철된 후회와 미련으로 침전하던 그 시절, 그녀를 만났다. 그녀를 만나 사랑을 했고, 내 모든 후회와 미련은 쉽게도 스러졌다. 분명 서툰 나의 사랑과 같구인데도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여름이란 계절 안에서 나보다 사랑하는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물질적인 풍요보다 내면의 풍요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는 당위를 생각했다. 넘치는 행복함으로 모든 감각이 아득해져 꿈속을 걷는 듯한 순간들이 지속되었고, 나는 지금 이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예외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그녀와 이별했고, 환희와 비탄은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그동안 정말 꿈이라도 꾸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녀가 여름의 세찬 소나기처럼 쏟아 붓던 모든 사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금 파리처럼 바스라진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다른 계절을 마주하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먼길을 걸으며 발은 물집으로 인해 고통에 잠겼고, 피로한 눈의 흰자위에는 핏발이 그어져 갔으며, 검은자 위는 절박하고 불안정하게 적막한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끝에 만난 다른 계절은 가을이었다. 공기는 선선했다. 완연하게 계절은 바뀌었고, 빨강과 노랑게 물든 무수한 낙엽들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불티처럼 흩날렸다. 영혼의 상처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아르튀르 랭보를 만났다.

그때 내 주변에는 책이 많았고, 나에게서는 시간이 많았다. 랭보는 내게 독서가 유일한 세속적 초월이라 가르쳐 주었고, 나는 책이 주는 무아경에 들곤 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인류문명의 입석인 수많은 책을 읽으며,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마다 내 낡은 세계는 입자 단위로 분해되어 사유의 우주로 흩어졌고, 그 광활한 우주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둘러싼 광막하고 거대한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지성의 가을에서 나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 시절의 내가 하루 중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곤 하던 황혼녘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의 타자다.”라고 위대한 랭보가 내게 말했다. 심오하고 철학적인 그의 말이 나를 관통했다. 랭보의 음성이 팔매처럼 날아와 내 마음에서 파동했다. 그 파동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의 말에 답을 구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가는 길 위에서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 말과 침묵,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인간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어진 빛과 어둠을 생각했다.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음을, 내 자신의 무한함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만난 마지막 계절은 겨울이었다. 매서운 추위의 계절이었다. 종일 내린 눈더미는 내 허벅지까지 차올라 있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에서 서른 네 살의 나는 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순간 코와 입으로 삼켰던 눈 진창이 비렸다. 목구멍에 담긴 눈의 비림을 기억하며, 겨울 안에서 처절하게 걷고 또 걸었다.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너절한 것들로 가득 찬 대지와 검푸른 숲과 얼어붙은 냇물 위에 쌓인 눈송이들이 흰 나비 떼처럼 일제히 날아올랐다. 살을 에듯 매서운 추위 때문에 실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느 곳에도 없었다.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지난 인생의 날들을 생각하듯이, 회진(灰塵)으로 화해버린 집터에서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집을 생각하듯이, 캄캄한 어둠속에서 한줄기 빛을 생각하듯이, 겨울 안에서 평온하고 따스한 고향의 봄을 생각하며 인내했다.

길었던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고향과 재회했다. 계절은 여전히 따스한 봄이었다. 그 동안의 고단했던 긴 여정 동안 옷은 남루해졌고, 발은 물집으로 인해 굳은살 투성이였지만, 내면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나는 하나의 타자다.”라고 말한 랭보에게 나는 답했다. 그 긴 시간동안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길 위에서 외롭지 않았다고. 그들의 눈물과 사연과 담과 사랑이 내가 걷는 발자국 아래 켜켜이 쌓여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이 내가 되고 내가 그들이 될 수 있었다고 나는 랭보에게 말했다.

고향이 내게 물었다. ‘인생에는 역(逆)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느냐고. 나는 고향에게 답했다. 고향의 봄에서 시작된 계절은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거쳐 다시 고향의 봄으로 순환한다고. 그 순환의 시작이자 끝이 고향의 봄이고, 그렇기에 인생은 역(逆)이 아닌 순환(循環)이라고 나는 고향에게 말했다. 이윽고 고향은 아름답게 웃으며, 나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 주었다.

나를 포함한 이 글을 읽는 모든 수용자들은 각자의 겨울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간다. 비록 모든 것을 희끗하게 얼려버리는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지만, 계절이 순환하듯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따스한 고향의 봄은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위대한 작가의 글이 고독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탄생하듯, 삶의 막다른 길에서 문학은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 우리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기꺼이 빛을 기다리며 함께 서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를 문학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법무부 수용자 종합 문예지 '새길'의 '이타적인 문학적 가치'라 나는 확신한다.

이 글을 이루는 내 간절함이 문장으로 엮인 은유와 단어의 표면을 뚫고, 찬란한 삶의 아름다운 '새길'을 걸어갈 모든 수용자들에게 닿기를 온 마음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바다에서 등대가 되어 나를 인도해 준 진은영 시인의 봄빛의 명징함 같은 문장으로 이 글을 마친다.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 속을 걷는다.”  
- 진은영 시인의 시, '어울린다'



**작품평**

랭보와 진은영의 시를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죄로 그곳에 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계절의 특징을 잘 짚어 감상문을 썼는데 책을 많이 읽어본 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서 펜을 놓지 말고 계속 쓰면 그곳에서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육사, 윤동주, 김광섭, 김지하, 박노해, 김남주, 루이제 린저, 오스카 와일드 등이 옥중 경험이 있는 문인들입니다. 책을 통해 더욱 넓고 높은 지식을 쌓고 많은 수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 부모님의 사랑은 나의 고향, 따스한 봄

장현주



‘고향’이라는 단어와 ‘봄’이라는 단어가 합해지면 ‘고향의 봄’ 노래로 익숙한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다.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고 봄에 대한 추억은 있지만 ‘고향의 봄’으로 추억되는 장면과 장면은 사진으로 보여 지는 그때의 그 시절이 아니면 느낄 수 없을 것이다.

28년을 ○○에서 자라고 커서 결혼 후 ○○으로 가 10년을 살다보니 친정을 갈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의 친숙함이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과 ○○은 광역시인 도시라서 시골 같은 고향의 토속적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향의 의미를 부모님으로 부여하고자 한다. 늘 그 곳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향인 두 분이 나의 시골인 것이다. 그리고 봄이 주는 계절적 의미의 봄의 따스함과 생명력은 ‘~봄’의 의미로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 자리 잡은 내 마음의 따스함과 성숙함을 생각하게 된다.

바라봄, 마주봄, 가까이봄, 쳐다봄, 길게봄, 좋아봄, 싫어봄, 도와봄, 그래봄, 따습봄, 차봄, 추워봄, 비워봄, 채워봄, 돌아봄, 지내봄, 그리워봄... 서로 봄으로 내 고향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지어봄’은 ‘미소봄’으로 이어진다. 부모님의 지지와 응원과 사랑은 겨울 눈꽃을 추위 속에 견뎌내고 꽃샘추위를 이겨내 꽃을 피우는 나무를 닮았다. 자식을 키우며 인내하고 기다려줌의 깊은 뜻이 부모님 마음이기에...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곳에 그 동안의 지내온 세월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고 지나쳐 갔지만, 터춧대감으로 자리 잡으신 고향의 향수는 내 어릴 적 놀이동산이다. 뒷동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때의 흙의 냄새가 무색할 만큼 다시 빛으로 바뀌었다. 그 시간 속에 나의 안식처인 두 분의 모습이고, 희망찬 청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살에 나이가 느껴진다.

갑작스런 수용생활로 불효자가 되고 나의 아이들은 고향에 맡겨졌고, 내가 올랐던 동산이 공원으로 바뀌어 축구공을 차며 내가 다녔던 모교를 다니고 있다. 곧, 새 고향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봄을 엄마없이 맞이할텐데, '아들들이 느끼는 고향은 어떨까? 나 같은 향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봄이 되면 벚꽃 축제를 하던 마을 축제가 열렸던 근처 공단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꽃송이들의 분홍빛을 보며 행복으로 물들인 꿈을 꾸었다. 봄의 계절에 결혼식을 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가족여행으로 ○○에서 찍은 사진은 내가 사진기로 사진 찍은 방법도 모른 채 셔터를 눌러 버려 찍힌 모습에 봄의 푸른빛과 노란빛, 분홍빛으로 웃음 짓는 고향의 행복이 묻어난다.

특정한 장소가 생각나지 않아도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곧 나의 고향이라는 것이 교도소에 오니 더욱 간절히 다가온다. 출소를 하게 되면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고향의 품에서 지내겠지만 돌아갈 안식처가 있다는 것으로도 큰 위안과 감사함이 나를 '설레는 봄'으로 만들게 한다.

너무나 보고 싶은 아이들은 고향이 ○○이기에 또 다른 고향으로의 여행을 느끼러 그 곳의 봄을 느끼러 가고 싶다. 황토길을 따라 맨발로 토양의 기운을 받으며 꽃잎들의 축복 속에 ○○산성을 오르면, 피어 있는 민들레와 제비꽃의 봄을 느끼고 싶다. 지상낙원 같은 느낌이라 할 수 있는 초록빛 잔디위에 수놓은 노랑, 보랏빛은 봄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이며 트임이다. 하늘까지 마음껏 누려 볼 수 있는 푸르름을 그리며 잠시 동안이나마 고향을 마음에 담는다. 봄날을 '기다려 봄'이 곧 '감싸 안아 봄'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다가가 봄'이다.

나의 고향, 나의 봄을 꽃 피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작품평**

○○에서 나고 자라 ○○으로 시집을 가셨군요. 향구도시에 대한 추억이 참 많겠습니다. 내륙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봄'으로 끝나는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 모음이 재미있습니다. 글도 깊이가 있는 것이, 인생의 내공을 많이 쌓은 덕분일까요. 계속해서 수필을 쓰기를 권유합니다. 수필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고향의 봄

김수일

하얀 목련꽃이 지고 봄이 찾아오니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고향 생각이 난다.

내가 살던 고향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꽃피는 산골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담하고 예쁜 마을이었다. 봄이면 산자락에 내 마음 같던 노란 개나리꽃이 피고 개울가 옆 돌담길 따라 연분홍 벚꽃잎들이 만개해 함박눈처럼 하얗게 흩날렸다. 올레길 곳곳엔 하얀 감귤꽃들이 수북이 피어나 봄 향기를 더했고 드넓은 보리밭 돌담길 따라 파란 청보리가 살랑거리며 등하곶길 발걸음을 설레게 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을 동화 같은 산골 마을에서 살았다. 한적한 산골 마을이라 슈퍼도 없고 근처에 학교도 없었던 터라 사계절 머루, 산딸기, 무, 날고구마를 요기 삼아 왕복 한 시간은 족히 걸리는 읍내 소학교까지 걸어서 다녔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 먹을거리가 많아졌지만 내가 살던 그 당시엔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아 산이나 들에 달린 나무 열매들이 유일한 요깃거리였다. 그래서 가끔 허기를 채우려고 또래 아이들과 작당하여 남의 밭에 들어가 정성들여 키워놓은 수박이나 참외를 서리해다가 먹는 일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죽마고우가 집으로 찾아와 나에게 솔직한 제안을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제안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큰 사건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었다. 친구의 제안은 간단했다. 다음날 아랫마을에 사는 박 영감댁 밭에 묻어둔 저장 고구마를 서리해다가 구워 먹자는 제안이었다.

내가 살던 산골 마을에선 옛날부터 고구마 수확을 하고 나면 팔다 남은 고구마를 밭모퉁이에다 둥그렇게 땅을 파고 그 속에 고구마를 넣어 벧짚으로 두른 뒤 겨우내 저장해 두었다가 봄날에 꺼내 요리해 먹는 풍습이 있었다. 물론 저장해 둔 고구마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고구마를 저장해 둔 곳엔 항상 비가림용으로 만들어 씌운 둥그란 벧짚 모자가 씌워져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의 제안에 응하고 마을 언덕배기에 나가보니 죽마고우와 함께 후배 한 명과 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박 영감댁 밭에 도착한 우리는 후배에게 땅을 보게 한 뒤 땅속에 저장해 둔 토실토실한 고구마 수십 개를 서리해 도망을 쳤다. 언덕배기에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돌로 주위를 빙 둘러싸고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다 쌓은 다음 빙 둘러앉아 친구가 가지고 온 성냥으로 불을 지폈다.

십분, 이십분, 활활 타오르는 잉겔불 속에서 구수하게 익어가는 고구마 냄새가 군침을 자극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뜨거운 불씨를 사방으로 순식간에 흩트려 버렸다.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때는 이미 늦어 버렸다. 바람에 흩날린 불씨는 삼시간에 잔디를 태우고 목초지를 집어삼키며 사방으로 옮겨붙어 버렸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던 우리 곁에 질린 채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쳐버렸다.

그 일이 있고 하루 만에 박 영감댁 고구마 서리를 목격한 아랫마을 아줌마의 신고로 우리 모든 일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행히 언덕배기 주변으로 빙 둘러싸인 돌담 덕분에 산불은 숲 쪽으로 옮겨붙지 않았고 천만다행으로 근처 밭에서 일하던 마을 어르신들에 의해 모두 진화되었다.

하지만 우리 그 일로 눈물이 펄펄 쏟아질 만큼 동네 어르신들과 부모님께 야단을 맞아야만 했다. 이제 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참 어렸지만 철이 없었고 천진난만한 개구쟁이들이었던 것 같다.

그 일이 있고 십 년이 지날 무렵 내가 살던 산골 마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 어느 날 갑자기 살랑이던 청보리밭들이 사라지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자주 놀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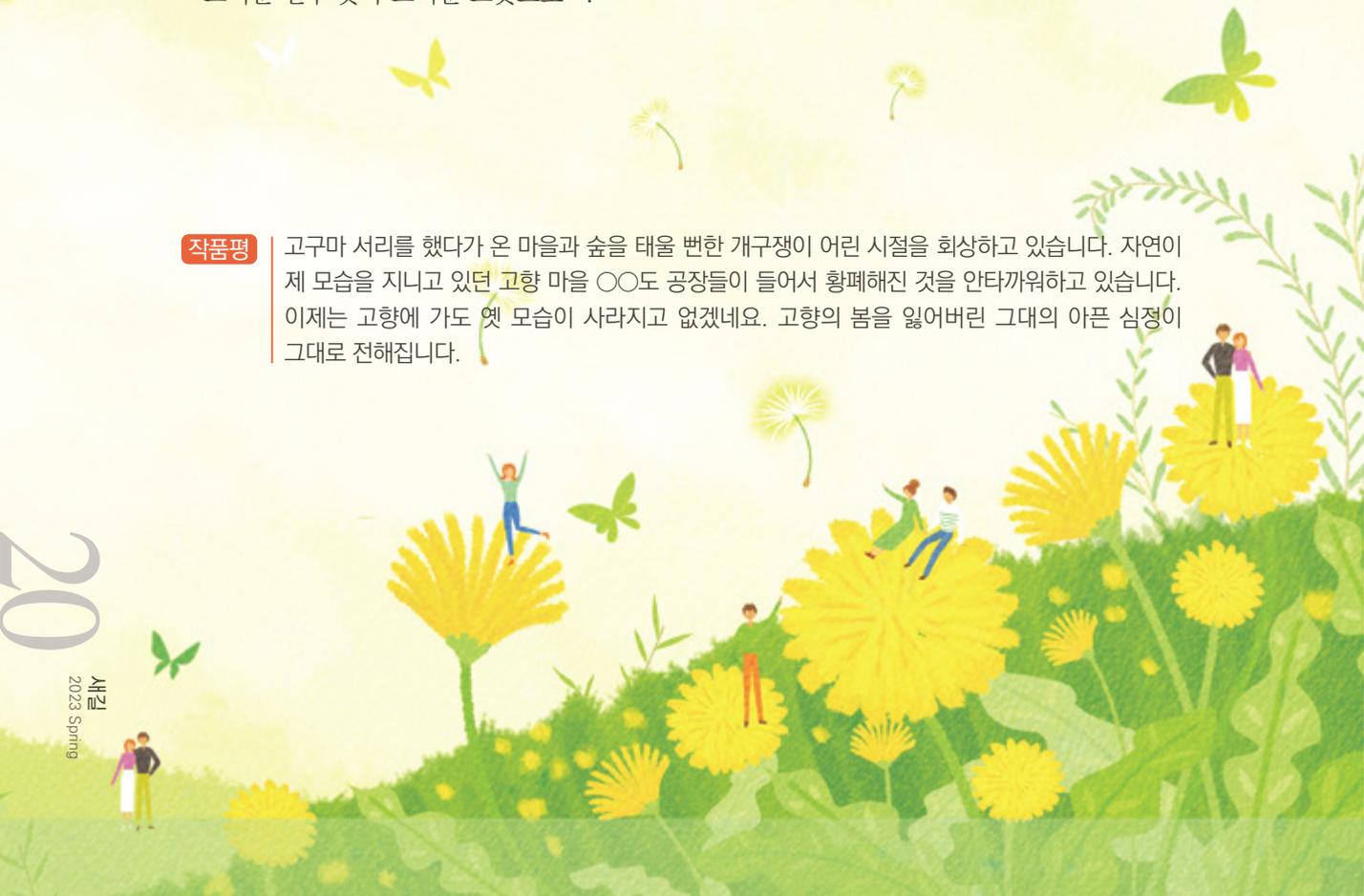
언덕배기도 사라지고 있었다. 게다가 수백 수천 년간 우리 조상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왔던 ○○○도 훼손되어 갔고 그 자리에 시커먼 연기를 펄펄 내뿜는 대규모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일로 환경단체와 더불어 마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투쟁했던 정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 도심으로 떠나 버렸다.

그 후로 아담하고 예뻐던 산골 마을은 조금씩 조금씩 시야에서 멀어지고 사라져갔다. 어렸지만 가슴이 시릴 만큼 아팠다.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놀이터였던 언덕배기가 사라지면서 친구들도 떠났고 그들과 함께 쌓았던 아름다운 추억들도 영원히 땅속으로 묻혀 버렸다.

한때는 아버지를 따라 순박한 농민이 되는 게 꿈이었던 나,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고 시대는 변화되기 마련이지만 순박한 내 꿈만큼은 변하지 않길 내심 바랐던 내 고향 산골 마을, 다시는 내가 살던 꽃 피는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봄은 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고향이 물씬 그리운 봄날이 돌아올 때면 나는 어김없이 내 마음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추억 속으로 여행을 자주 떠나곤 한다.

그리운 친구 찾아 그리운 그곳으로….

**작품평** 고구마 서리를 했다가 온 마을과 숲을 태울 뻔한 개구쟁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제 모습을 지니고 있던 고향 마을 ○○○도 공장들이 들어서 황폐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 가도 옛 모습이 사라지고 없겠네요. 고향의 봄을 잃어버린 그대의 아픈 심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 고향의 봄

김애경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기억인 만큼 몸과 뇌리에 저장된 수십 년간의 기억을 불러내어 성찰하게 되고 지문처럼 박혀있는 기억까지 끄집어내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에 아련하면서 울컥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다가 준 선물들을 작은 손 위로 하나둘 주워 모았던 기억들, 귀를 가까이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빈소라 껍질이 정말로 바다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아 신기했던 그 순수한 시절의 기억….

맑디맑은 얼굴로 나를 반겨주던 따뜻한 봄날의 ○○ 바다, 그날 온도에 따라 햇빛에 따라 바람에 따라 늘 다른 모습을 내어주는 바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에 있어도 ○○가 그리워지는, 유채꽃이 사방에 흐트러진 ○○의 봄날, 이곳이 나의 고향의 봄을 연상케 하며 겨울의 끝자락에서 다가올 ○○의 봄이 그려집니다.

때론 삶이 씩씩해지고 그 어떤 일이 괴롭혀도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는 마치 ○○의 바다와 숲 그리고 오름의 너른 품처럼 나를 기다려 주며 넉넉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흔적이 있어 혼자인 줄 알았던 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지금이 오롯이 그리움만으로 붙잡아 아쉬움에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져 옵니다.

가신지 10년,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묻힌 그곳을 찾는 것만으로도 힘들 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기억 속의 어머니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을 것을 너무나 중요시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아침을 먹지 않고 가면 학교로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덕분에 나의 친구들은 나의 어머니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밥’일 정도였습니다. 9남매를 낳아 매일 뜨신 밥을 먹이며 사랑으로 알뜰히 키우셨던 어머니, 이른 새벽 천수경을 틀어놓고

108개의 염주 알을 돌리시며 자식들의 행복을 비셨던 나의 어머니, 서 있는 것도 힘드시면서 '다 괜찮다'로 툭 잘라 말하곤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기억을 잃지 않게 하려고 거울에 가족사진을 붙여놓고 하셨던 어머니,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자식과 손자 손녀들을 자세히 새기셨던 어머니,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있던 시절에 참는 게 미덕인 그 시대에 어머니는 뭐든지 참아야 하는 줄 알았고 편식하며 남편과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먹여야만 하는 줄 알았으며 퍼주는 여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도 맛있는 거 보면 드시고 싶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슬프고 다른 누군가의 투정을 들어주는 것이 힘든 보통의 여자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예쁜 옷을 보면 입어 보고 싶고 멋진 신사를 보면 가슴이 설레는 평범한 여자인 것을... 어머니는 원래 어머니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이니깐 '어머니이기에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당연함이 자식이 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보니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바보같이 안 살 거라던 나 역시 엄마가 되어 삶이 이어지고 어머니의 삶이 결국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항상 정답게 '우리 막내딸~'하며 절 불러 주시는 그 목소리 너무나 그립습니다. 문득 먼저 떠난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계신다는 느낌이 불현듯 들기도 할 때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싶어 설레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회색빛 담장을 넘는 날 어머니가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흥시와 산적을 올려 내 마음의 고향의 봄인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심어 놓은 소나무가 올해도 많이 자라 있겠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을 꽉 채우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작품평**

○○도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었나 봅니다. 그 마을에서 9남매를 키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다고요. 고향의 품은 어머니의 품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마을이지만 고향 마을에서의 추억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출소 후 흥시와 산적을 들고 어머니 계신 곳에 찾아가는 그대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곳의 봄

이경로

봄 여름과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의 시작은 단연 봄이다. 그 봄은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남녘 땅 끝자락에서 시작된 봄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다가올 수도 있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봄이 시작되어 입춘과 우수를 거쳐 경칩에 다다를 때쯤이면 겨우내 뽕뽕 얼어붙었던 세상은 마침내 따뜻한 봄 햇살에 녹아내리며 다시금 대자연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는다. 그 증거로 지난 겨울 바짝 메말랐던 나뭇가지엔 파릇파릇한 새싹이 하나 둘 돋아나고, 어느샌가 망울진 꽃봉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뽕뽕해지며 활짝 터뜨릴 날만 기다리는데,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 한 자락이 주위를 맴돌면 그 바람 끝에 매달린 옅은 매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며 봄 소식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그 봄바람에 실려 온 풋풋한 봄내음은 마법까지 부려 겨울 동안 한껏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솟털 같은 가벼움으로 탈바꿈시킨다. 아마도 바로 앞 문턱까지 다다른 봄을 느끼는 순간 겨울 내내 닫혀 있던 마음에 비로소 한 줌의 여유가 생기며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이 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모처럼 여유로워진 사람들과 달리 봄을 맞이하는 세상은 이때쯤부터 매우 분주해진다. 특히 이제 막 연두색 세상으로 변해 가는 남해안은 그 분주함이 유독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에서 시작해 전남 ○○까지 이어지는 연안의 바닷가를 일컫는데, 그 길이가 보통 긴 게 아닌 만큼 연안의 지형 또한 각양으로 다채롭기가 그지없다. 특히 연안 곳곳 산과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꽤나 많은데, 그 중간쯤에 있는 ○○(지명)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렇게 한반도 남쪽 바다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는 동해안의 어느 도시처럼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해안의 어떤 도시처럼 간조 때 너른 갯벌이 드러나는 곳도 아니다. 하지만 바다를 향해 돌아서면 시선을 어디에 두든 작은 섬 하나쯤은 흔하게 눈에 띄고, 바다색 또한 썰물 때가 되어도 사시사철 변함없이 쪽빛의 푸르름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런 남해는 나의 소중한 추억이 오랜 시간 깃들여 있어 사실상 내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어쨌든 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남해의 육지 쪽을 바라보면 눈두렁길의 가느다란 동선을 따라 양증맞은 화단들이 연이어 펼쳐진다. 그 화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다량논인데, 봄이 되면 그 크고 작은 다량논에선 수선화를 필두로 다양한 봄꽃들이 앞 다투어 피어난다. 특히 유채꽃이 필 무렵이면 다량논마다 온통 노란 물결이 일렁이며 그 주변의 풍광까지 셋노랑계 물을 들인다.

그렇게 배 위에서 바닷가 언덕 쪽으로 시선을 오르내리다 보면 가까이 있는 다량논에선 만발한 수선화와 유채꽃이 뒤섞여 보이고, 조금 멀리 있는 바위산에선 분홍빛 진달래와 노란색 산수유가 듬성듬성히 보이며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선착장에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와 산수화의 한 배경을 이뤘던 다량논 언덕배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푸른 수평선 위로 이름 모를 섬들이 그림처럼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절경 중에 절경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온갖 수려함을 화려하게 품고 있는 한려수도엔 내 젊은 날의 추억 한 조각도 하나의 작은 섬이 되어 여태껏 머물고 있다.

아주 오래전 RNTC(Reserve Noncom Training Corps) 3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 남쪽 바다가 있는 남해에서 군대생활을 한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6년 2월부터였는데, 주 임무는 간첩이나 무장공비들로부터 남해안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것이었다. 다만 휴전선에서 가장 먼 최후방에서의 군대생활이다 보니 전방 지역으로 자대배치 받은 동기들에겐 내심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가끔 동기들을 만날 때면 내 근무지 또한 엄연한 남부 전선 최전방이라며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고, 그렇게 실없는 우스갯소리를 던지며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기도 했다.

여하튼 내 젊은 청춘을 바쳤던 남해는 매년 봄이 시작될 때마다 수선화나 유채꽃 못지않은 또 다른 봄꽃이 피어난다. 아름답다 못해 매혹적이기까지 한 그 봄꽃이 피어나면 해안을 이루는 절벽 곳곳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가는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백꽃이다. 거대한

바위들로 꽉 채워진 바닷가 절벽 사이사이에 파릇파릇한 잎을 매단 크고 작은 동백나무들이 가지 끝마다 보란 듯이 빨간 꽃을 수없이 피워 내는데, 이른 봄 그렇게 해안가 바위틈 여기저기에 그 빨간 동백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뜬금없이 이미자의 노래 '동백 아가씨'가 절로 떠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노랫말도 다 알지 못하는 동백 아가씨를 부지중에 흥얼흥얼해 댔는데, 돌이켜 보니 매년 동백꽃이 피는 봄마다 그렇게 그 노래를 흥얼댔던 것 같다. 다만 너무 오래된 추억이다 보니 이젠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아련해져 마치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지는데,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옛 기억마저 이렇게 가물가물해지는 게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나저나 고향이나 다름없는 남해의 봄은 지금도 여전한지 모르겠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그 대지 위에 봄 햇살이 내려앉으면 수선화와 유채꽃을 비롯해 진달래와 산수유, 그리고 동백꽃의 세상으로 변해 가는 남해인데, 기반의 신세라 가 볼 수가 없어 그곳의 봄이 어떤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이처럼 지난 과오로 인해 그리움마저 아련한 옛 기억으로 대신해야 하는 현실이 그저 후회스럽고 씁쓸하기만 하다.



**작품평** 태어나서 자란 고향은 아니지만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것이 경남 ○○였다고요. 제2의 고향이 된 그것의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 보여준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자연이 그대에게 준 감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더라면 벽 안에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지요. 출소 후에 그곳에 다시 가보면 상전벽해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이 바뀌었겠지요. 남해 여행에 대한 꿈을 잘 키워가길 바랍니다.

# 고향의 봄!

배소영

고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20리 길 되는 논두령을 따라 굽이굽이 걸어서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어느새 핀 개나리꽃과 산등성이에 핀 진달래 꽃들을 마주하며 안녕! 어여쁜 꽃들이 잘 잤니? 예쁘구나! 고마워. 늘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맞이해줘서...

울긋불긋 꽃대궐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큰아버지가 노름에 가산을 탕진하고 막내인 아버지의 집까지 팔아버려서 아버지는 시골로 이사를 하시고 직장 때문에 출퇴근도 하시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산골짜기 시골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라는 동갑 또래가 있었습니다. 늘 보리개떡을 찌서 양손에 들고 와서 제에게 나눠줬습니다. 둘이 손잡고 뒷산 등산에 올라가서 산딸기도 따먹고 뱀딸기도 따먹고 칩도 캐서 먹고 열매란 열매는 다 따서 먹었습니다.

세계의 문학가는 시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날 소년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육상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가는 전 날 엄마가 해 주신 보리개떡을 두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가 이거 먹어> 어린 마음이지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잘 가! ○○야!

어느덧 세월이 흘러 ○○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 장가는 가서 잘 살겠지? 늘 귀엽고 잘생긴 모습만 떠오르곤 합니다. 춘원 이광수씨의 작품 <사랑>을 읽으며 어릴적 소꿉친구 ○○를 그렸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고향의 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적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이셨기에 늘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유일한 스승님의 자녀라고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시험지를 손에 들고 확인하시고는 오빠나 언니는 공부를 참 잘하는데... 라고 고개를 가우똥하셨습니다. 저는 유달리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극장표를 얻어서 가져오면 영화를 보러가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TV가 없었던 시절에 영화가 최고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시골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흥내도 내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어렸을 때 추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예쁘게 가끔 입으셨습니다. 고향의 봄은 어머니의 한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노란 개나리 색의 한복을 한 벌 곱게 입으시고 아버지와 외출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노란 한복을 곱게 차리시고 머리를 곱게 단장한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추석 명절 때나 설날에도 고향에 가고픈 마음에 몇날 며칠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고향의 봄은 따뜻하고 엄마 품이기도 하고 고향의 봄은 춘원 이광수 작가처럼 마냥 순수한 사랑을 생각게 하고 울긋불긋 꽃대궐을 연상케 합니다. 출소하면 부모님 산소와 그림고 순수한 시절이 그리운 고향의 봄을 찾아볼까 합니다. 고향의 봄을 생각하면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품평

보리개떡을 찌서 양손에 들고 온 옆집 친구 ○○가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덕분에 ○○와 소영의 참 아름다운 어린 날의 추억 속으로 그대와 함께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보는 걸 좋아했고 노래 부르고 춤 추기를 즐겼다니 연예인 기질이 있었나 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떠오르는 고향은 기억 속에 있을 따름이지만 그 기억이 그대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천이자 원동력이겠지요.

# 고향의 봄을 그리워하며 나에게 묻는다



박영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어촌, 예향의 도시이자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한 곳, 고향을 살리는 데 모두 일조한 바 있습니다. 계모년 검은 토끼해가 시작되었는데 토끼가 들어있는 사자성어로는 교토삼굴, 토사구팽 등을 들 수 있겠으며 교토삼굴은 '영리한 토끼는 살기 위해서 굴을 세 개 판다'는 뜻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자인 우리에게 빗대어 풀이해보면 '어떤 실수로 인하여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했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사구팽은 '사냥철이 끝났으니 그 토끼몰이의 개를 삶아 먹었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열심히 노력을 다했는데 쓸모가 없어지자 배신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자신의 추진하던 일에 성의껏 노력해나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체에 열의와 성의를 다했음에도 끝내는 조직에서 배척이 되었다면 그 기분은 아마도 참담할 것 같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주제로 수필 한 편을 쓰려니 어떤 스토리로 전개를 풀어써야 할지 고민하다 교만으로서가 아닌 누군가 저의 글을 읽고 작은 용기와 미소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필력이길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게 2021년 봄이니까 벌써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잡고 모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에 힘쓴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일상 회복이 되려나 생각했었지만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특별한 바이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옳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확진자 수를 줄여나가고 경제적 손실과 인명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으로선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집단 면역의 수준으로 확산을 줄여 나가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성장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에는 애환과 생활고와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시국에 따른 자존감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고 수인이 된 우리들도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겨운 교정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십여 년 동안 장기 부역을 하면서, 특히 매년 2월 4일과 2월 11일은 저의 부모님 기일로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시린 아픔의 흔적을 감내하며 천상에 계신 부모님께 위령 기도를 한 달 동안 정성드려 바쳤습니다. ○○교 신자로서 늦었지만 내 모든 죄를 주 하느님께 회개하고 신당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업을 소멸하여 새롭게 운명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씬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를 인용한다면,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맘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절망적 내용으로 받아드리기보다는 두 번의 실패는 없더라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없다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희망을 찾겠다고 두 번의 인생은 없더라도 제2의 인생은 있다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은 없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싶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걸림돌인데 그것을 역으로 밟고 일어선다면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장애물)에 대해 스스로가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는다면 조금씩 미래지향적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감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설문조사한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라 생각하며, 서로 남의 탓만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만이 옳다고만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여건이나 사물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반계곡경으로써 좋은 일로 처리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글을 맺습니다.

임인년 한해는 정말 빛나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 최고 권위를 지향하는 에미상을 들어 올렸고 그룹 BTS의 빌보드 1위 연속 석권을 비롯하여 연말에는 기적같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저력을 보여주어 국민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기회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문장력이나 화려한 스케일이나 돋보이는 미사어구나 상황 묘사로 빛을 발하는 필력은 아니지만 이 수필 한편을 읽는 전국 수행자들의 마음에 종교를 통해 거듭날 수 있음을 그리고 시국의 어려움에 작은 미소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간절함이 전해지길 염원해 봅니다.

단 1%의 확률로 태어난다고 하는 흑토끼의 올 한해에는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는 한 해, 국풍이 좋은 호각세로 돌아설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희망과 꿈이 실현되어 그대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저는 이 한편의 수필에 녹여내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뛰어난 문장력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새길지에 도전장을 던져 보길 희망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참 아름다운 고장이 고향이군요. 책도 많이 읽었고 글도 많이 써본 분의 아주 멋진 수필입니다. ○○교인이라고 하셨는데 시련의 세월을 잘 인내하기 바랍니다. 붓다도 예수도 시련의 시간이 있었고, 인생에서 거듭나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의 아픔을 달래준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BTS의 빌보드 1위, 월드컵 16강 진출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규 님도 시련을 잘 극복해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 고향의 봄

방희경



저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 수용생활로 누우치고 깨닫게 된 그 끝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 찾은 행복 새길 수필 작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써 내려가려 합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제대로 살아온 날보다 잘못 살아온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장애가 있는 쌍둥이 아들을 떠안았을 때 앞날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애들의 학비와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어떤 일을 해야 애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지 항상 그 생각만 하면서 돈이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 육체만 힘들게 돈을 벌었더라면 정말 훌륭한 어머니로 남들의 찬양을 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저의 힘든 사정만 내세우며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면서 양심에 가책받으며 돈을 벌면서 그것이 제 능력으로 번 돈 인양 행복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속 되기 전에 ○○구청에서 추천해준 자활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며 저의 쌍둥이 아들들과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친언니인 방○○과 열심히 일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도 행복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하나 쌓아나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없는 집에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아픈 쌍둥이 아들들만 살고 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깜빡깜빡하시고 자주 가스 불에 찌개를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잃어버리고 다 태워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불안합니다.

지금 사는 곳이 지하 단칸방입니다. 겨울이면 쌍둥이 아들들 방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 벌레가 너무 많아 이사도 가야 합니다. 저희 아픈 아들들과 홀로 남은 어머니가 이 못난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중 교도소에 대한 내 머릿속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벌을 받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도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재소자를 교화시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목표와 뜻을 이해했고, 이해한 순간부터 수감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데 궁극적인 마음이 생기니 제 몸이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앞으로 새 출발 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도 보여 드릴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벌이 나 혼자만의 벌이 아니라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쌍둥이 아들들과 전체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 이렇게 벌을 받게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럽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어려운 일이 아닌 약속마저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후회가 막심하지만, 지금의 수용생활이 있으므로 수용자 새길지라는 곳에 저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마음의 고통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작은 희망의 이야기를 고향의 봄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써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했던 약속이 이제야 그 약속 뜻을 조금은 이해되려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향은 전라남도 ○○입니다. 살아생전에 꼭 한번 가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 고향 전라남도 ○○면입니다.

고향 한번 모시고 가지 못하고 그리 어려운 일이었나. 취장암 4기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꼭 한번 가보자고 약속하였는데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늘로 먼저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향 한번 같이 가드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원이 되고 한이 될 줄 몰랐습니다. 훗날, 천국에서라도 만나 고향의 봄날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의 글을 이리 쓰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높고 높은 담장이 있는 교도소에 있다는 게 미칠 정도로 힘들었지만 늦은 밤 조용히 글을 쓰며 자는 거실 식구들을 보니깐 이젠 정말이지 자매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나기 전 아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몸무게 40kg 몸은 쇠약했지만, 마지막까지 치료받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아빠의 얼굴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빠를 떠나보내고 1년 되던 해 하늘 ○○원 추모공원에서 아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습니다. 인생이란 참 뜻대로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훌륭한 아빠를 만나 47년 동안 사랑하고 행복했으며 가장 힘들고 아파했던 2020년 그해 봄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앞으로 계획대로 사회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길 희망합니다.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나를 믿고 기다려 주는 사랑하는 쌍둥이 아들과 그동안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태연하게 넘길 수 있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엄마와 남동생들과 저의 언니여서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을 챙기며 제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세요. 그 어떤 난간에서도 믿고 지지해준 가족,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의 고통 속에서 작은 행복의 빛 한줄기를 찾게 된 저의 수용생활과 많은 삶의 지혜를 저 스스로 누우치고 깨닫게 해준 천국에 계신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수용자 새길지 응모전을 통해 수필을 처음이자 첫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음에 의미가 깊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작품평**

사람은 누구나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순간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과 이혼하고 장애가 있는 쌍둥이 아들을 키우게 되었을 때, 어머니와 언니, 동생들, 그리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추천해준 자활근로를 하면서 말입니다. 남은 기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가족과 재회하기를, 특히 쌍둥이 아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 고향의 봄

정하동

내가 살던 고향은 산 좋고 인심 좋은 사람 살기 좋은 고향으로 전국 석탄 생산량 제일을 자랑하는 강원도 ○○ 광산촌에서 1972년생으로 태어났다.

○○라는 지명은 일제 강점기에 석탄을 캐내어 동해 ○○항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산을 깎고 터널을 뚫어 어렵게 기차길을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1차 산업인 광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석탄을 캐내기 위해 광부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작은 광산촌에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이주하면서 ○○ 고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의 호황기를 맞이 시작하였다.

우리 집안도 일제 강점기 시절 대동아 전쟁 때 1943년생이신 아버지가 백일도 안 되실 때 할아버지께서 징용으로 끌려가셨고, 그때 당시 경상북도 ○○의 본적지에 살고 계시던 증조할머니께 청천벽력 같은 전사 통지서가 전달되면서, 큰 충격에 시름 하시던 증조할머니께서는 앓아 누우셨고 몇 해 지난 후 할머니께서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 위해 수소문을 듣고 ○○라는 광산촌에 이사를 오시게 되었다.

홀로된 어린 아버지는 증조할머니 손에 키워지시다가 작은할아버지 손에 맡겨지셔서 지내시다가, 군대 제대 후 할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 탄광촌에 안착하시고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입사하여 ○○우체국에서 교환수로 근무하시던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시게 되었다.



아버지의 제2의 고향이며 나의 고향은 ○○광산촌이 되었다.

대략 1983년대까지 교통수단이 기차밖에 없었던 ○○는 매월 4일·9일 때면 큰 장이 펼쳐지고 그때마다 많은 장사꾼과 장구경 인파들로 장터가 북적거렸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장사꾼 간의 흥정하는 소리, 생선 파는 곳에 생선들이 즐비하게 놓여있고, 그리고 과일, 채소, 농기계, 알록달록한 옷가지 등 등 수많은 장사꾼과 어울려진 장날 때의 진풍경은 광산촌의 또 다른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던 걸로 행복한 기억이 되고 있다.

어릴 적 추억의 여름철이면 ○○ 주민들의 휴식터이자 지하 막장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하던 광부들의 육체적 고단함을 치유해주던 ○○리에 있는 계곡은 물도 맑고 깨끗하였고 산세도 수려하여 매년 철마다 많은 사람의 휴식 공간이자 명소였으며 친구들과 1차, 2차, 3차 폭포는 우리들의 개구리 수영 실력을 키워준 지금의 수영장으로 정겨운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천년 고목이 있는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 년마다 ○○제라는 지역행사가 펼쳐지며 지역의 안녕과 안전 기원제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나의 어릴 적 볼거리가 없던 그때에는 야시장도 펼쳐지기도 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살았던 우리 집 앞에는 상설시장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면서, 야채, 과일, 생선, 옷가게, 감자부침 등이 파는 곳이 다 모여 있던 시장으로 지금 생각하면 최초의 마트로 생각되는 곳이다.

우리 집 뒤편에는 영동선 철길이 있어서 시간마다 지나가는 기차를 보면 비둘기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여객 수송 기차부터 석탄을 실어 나르는 디젤 기관차, 전기기관차까지도 귀한 기차를 어렵지 않게 보면서 유년기를 보냈다.

철길 건너편 아래에는 미나리깡이 있어서, 매년 겨울철이면 동네 친구와 동생들과 눈썰매, 팽이치기, 눈싸움, 눈집도 만들며 개구쟁이 우리들의 즐거운 추억과 재미나는 놀이터였었다.

이런 소중한 추억이 깃든 나의 고향은 5만 명에 가깝던 인구가 지금은 1만 명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많이 있던 광산 사택도 폐광의 기로에서 광산의 감산과 감원으로 인하여 서서히 사라져가는 현실에 서글픔과 애환이 느껴지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절박한 고향의 진한 그리움을 회상하면서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수많은 옛 추억의 여행을 하면서 아련하고 진한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현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지난 일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하면서 저의 큰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향 선배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에 제실 유가족분들께도 죽는 날까지 평생토록 참회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봉사하면서 죄값을 겸허하게 받으면서 성실하게 수용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밝은 미래를 계획하면서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굳건하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바른 생활 태도로 새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칩니다.



**작품평**

강원도 ○○ ○○광산이 석탄 생산량이 전국 1위를 했을 때 거기서 태어났군요. 탄광촌 하면 탄가루가 날려와 빨래를 널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글을 보니 그곳이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한 멋진 고향이었습니다. 특히 ○○리에 있는 계곡이 제공한 추억과 야시장의 정경을 기억하고 있군요. 지금은 고향 선배의 목숨을 빼앗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요. 형기를 마치고 고향에 꼭 가보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 장소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 나의 아버지와 고향의 봄

지만선



막걸리 한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TV에서 한창 인기를 얻었던 영탁의 막걸리 한잔 노래다.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목련꽃이 활짝 피던 봄날에 막걸리 한잔과 노가리 한 마리로 농사일로 고된 당신의 피로를 달래시던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내 고향은 경상북도 ○○군이다.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봄이 오면 산과 들에 목련꽃, 생강나무꽃, 진달래, 살구꽃, 복사꽃으로 꽃 병풍 그대로였다.

한참 사춘기였던 18살이 되던 해 나는 봄꽃이 막 필 무렵에 고향을 떠나 ○○에 있는 고등학교도 진학했다. 도시에 대한 동경도 있었지만, 하루빨리 시골을 떠나고 싶었다. 우리 마을은 모든 집이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어린 내 눈에는 우리 집이 유난히 형편이 어려워 보였나 보다.

어머니 아버지는 봄이 오면, 농사일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 날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새하얀 목련과 막걸리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봄이 오면 우리 집 눈과 발은 조명등같이 새하얀

목련이 피었다. 목련꽃이 활짝 피는 이 시기에는 논농사로 잠자는 시간마저 부족한 농번기로 접어든다. 꽃구경은 커녕 거울에 당신의 얼굴조차 비춰볼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도 쟁기질을 참 잘하셨다. 쟁기질은 모내기 전에 논바닥 흙을 쟁기로 깊게 뒤집어 주는 일로 소와 사람이 죽어나는 일이다. 마을 대부분의 논들이 산속 깊이 다락 다락으로 있어 소와 사람이 죽어나는 일이다. 마을 대부분의 논 들이 산속 깊이 다락 다락으로 있어 소와 사람만이 감당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다. 아버지는 봄이 오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집마다 모내기 논에서 우리 집 소와 함께 쟁기질하셨다. 그렇게 품삯으로 받은 만원 이만 원을 소중히 모아 우리 형제들을 학교 보내 주셨다.

아버지는 당신의 나이 오십에 이르러서야 당신의 이름으로 된 다락논 몇 마지기를 농협의 용자를 빌어 사셨다.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으신 듯 막걸리 한잔하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집 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고등학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켜줄게”하시며 막걸리를 많이도 드셨다. 아버지는 당신의 땅에 표시라도 하듯 새로 산 논과 밭에는 새하얀 목련을 심으셨다.

아버지는 삶 내내 논과 밭에서 살다시피 하셨다. 잡초 한 포기도 없이 깨끗했던 논과 밭에는 감자, 깨, 고추, 콩, 배추, 무, 메밀이며 온갖 곡식과 채소를 심었고, 추수하는 날이면 언제나처럼 막걸리를 논과 밭에다 넉넉히도 뿌리시며 “고맙다. 고맙다. 참 수고했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그날은 우리 집 소 누렁이에게도 콩을 듬뿍 넣은 소죽을 끓여 먹였다. 아버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논과 밭으로 나가 한참을 일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러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급한 허기를 달래시라고 막걸리와 구운 노가리를 준비해 주셨다. 그제야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는 어린 나에게 노가리의 속살을 곱게 발라 입에 넣어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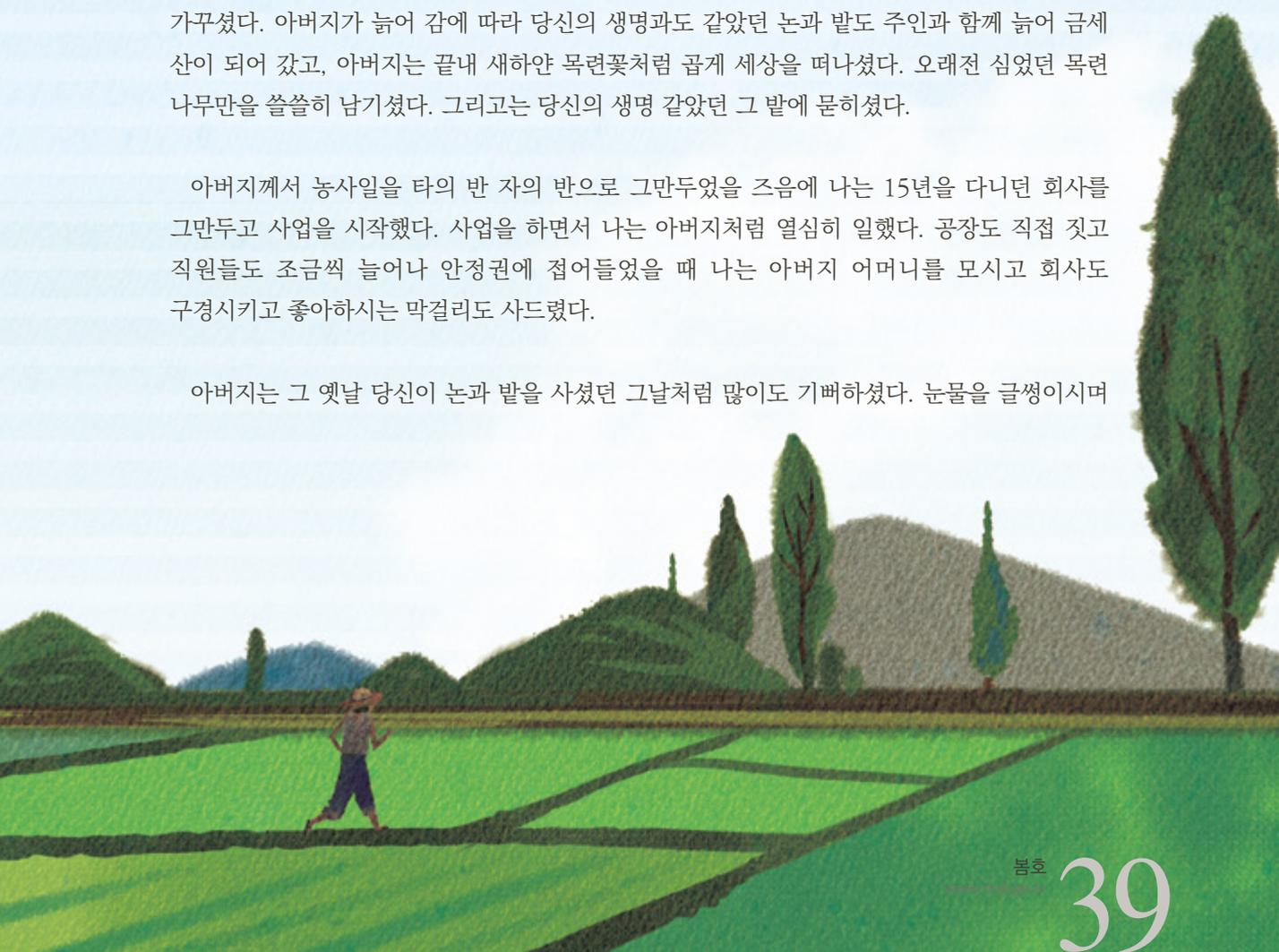
살도 없는 대가리는 막걸리 한잔과 함께 당신이 드셨다. 막내아들이었던 나는 막걸리를 직접 따라주겠다며 떼를 쓰기도 했다. 이제 8살이 되는 내 아들 ○○도 나에게 막걸리 따라 주는 것을 참 좋아한다.

늦둥이였던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논과 밭에서 놀기를 많이 좋아했다.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목련꽃을 따서 놀기도 했고, 우리 집 소 누렁이 등에 타서 놀기도 했다. 아버지께서 잡초를 뽑으시며 말씀해주신 ‘질경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아버지는 “질경이는 아무리 밟고 밟아도 죽지도 않고 더욱더 뿌리를 튼튼히 내려 살아남는 아주 지독한 풀이다. 그런데 이 지독한 풀이 상처치료에 특효가 있다.” 하시며 “질경이처럼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면 못 할게 없다.” 하셨고 농사일에 피라도 나는 상처를 입으면 질경이를 뺏아 상처에 붙이시곤 했다. 이 질경이에 관한 이야기는 내 삶의 철학처럼 되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당신의 체력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던 나이까지 애지중지하며 논밭을 가꾸셨다. 아버지가 늙어 감에 따라 당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논과 밭도 주인과 함께 늙어 금세 산이 되어 갔고, 아버지는 끝내 새하얀 목련꽃처럼 곱게 세상을 떠나셨다. 오래전 심었던 목련 나무만을 쓸쓸히 남기셨다. 그리고는 당신의 생명 같았던 그 밭에 묻히셨다.

아버지께서 농사일을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그만두었을 즈음에 나는 15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했다. 공장도 직접 짓고 직원들도 조금씩 늘어나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회사도 구경시키고 좋아하시는 막걸리도 사드렸다.

아버지는 그 옛날 당신이 논과 밭을 사셨던 그날처럼 많이도 기뻐하셨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맙다.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며 내 손을 잡아 주셨다. 그리고는 회사 입구에 목련꽃을 심으면 좋라며 당신의 쌈짓돈을 꺼내 주셨다. 그렇게 심은 목련은 해마다 새하얗게 피어 아버지처럼 나를 지켜주셨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회사는 차근차근 성장해 갔다. 그런 어느 날 경쟁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걸어왔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5년이 넘는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소송 다툼에서 나는 결국 패하고 말았다.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지금은 구속까지 되어 수감 중에 와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도 죄송했다. 마음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깨끗이 승복하고 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우여곡절 없는 인생이 있겠느냐마는 시련과 고난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사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질경이”처럼 더욱 튼실히 뿌리를 내려 당당히 다시 서고 싶다.

아버지! 올봄에는 아버지 산소에 찾아뵐 수 없네요. 내년 봄에는 아버지 손자인 ○○와 같이 막걸리와 노가리를 준비해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들 ○○에게도 할아버지의 목련 나무와 질경이 풀 이야기며, 봄이면 눈 진흙탕으로 범벅이었던 할아버지의 삶도 누렁이 이야기기도 들려줄게요. 봄이 오고 목련이 피면 더욱더 그리운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립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작품평**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넘쳐나는 글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면 벼나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농사는 정직한데 사업은 안 그런 측면이 있는지 경쟁회사와의 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고요. 질경이의 속성을 얘기해주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훗날 하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길 바랍니다. 산소에 가면 눈물이 많이 나겠습니다.



# 고향의 봄(아버지와 나의 봄날)

오민경

버스가 다니지 않던 비포장 흙길을 왕복 1시간 반 걸으면 전교생이 백여 명 남짓한 ○○초등학교, 나의 모교가 나온다.

등하교하던 들판에는 이름모를 들꽃들이 품속으로 스미곤 했던 갈길이 멀었던 차에 높은 하늘을 따라 집으로 데려갈 구름 기차는 그려보기도 했다. 뒤로는 ○○봉이 솟아 있고, 앞으로는 윤슬이 내려앉은 섬마을. 우물 안 개구리를 잡고 청미래 넝쿨 열매가 흐트러진, 짙레꽃 향기를 머금은 그 울타리가 온 우주인 듯 커 보이기만 하던 나의 고향. 동네친구들 서넛이 외길을 걸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벗이 되어 유년을 보냈던 ○○도 ○○마을은 내가 태어나 자란 뿌리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호의 선장님으로 가정의 무게를 안으셨다.

선장이자 선원이신 아버지는 홀로 배에 오르시고 다음날 새벽녘이면 어김 없이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무사귀환을 알리셨다. 어머니는 내다보시지도 않고 ○○호를 아셨고 매번 그 알음이 신기해 나는 담벼락에 올라 두 눈으로 확인 하곤 했다. 틀림없이 ○○호였다. 선착장에 정박을 하시면 어머니를 따라 마중을 나가곤 했는데 사실 간밤에 아버지가 남기신 간식을 탐하기 위함이었다. 그 달콤함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입안을 감돈다. 줄음이 쏟아지는 깊은 밤



어머니가 챙겨주신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곤 하셨는데 나의 속내를 알기에 항상 바구니를 비워두시지 않았다.

때로는 휘몰아치는 빗길을 뚫고 산으로 어이없는 오솔길을 넘어와야 하는 나를 위해 ○○호를 몰고 마중을 나오시기도 했다. 비록 파도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지만 선장님은 나에게 튼튼한 울타리였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인색했지만 아버지는 내방 창밖으로 보이는 묵직한 팽나무 같았다. 언제나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햇살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기도 했고 바람결이 되어주기도 하셨다.

20여년이 지나고 다시 찾은 고향집에는 팽나무의 우거진 푸르름이 내려앉아 아버지의 품안에 안긴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그려주신 나의 유년은 그토록 푸르렀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간은 멈추고 말았다. 그 날 아버지께서는 ○○호에 손 볼 것이 있다며 걸음을 재촉하셨기에 뒷모습으로 아침인사를 대신하셨다. 하교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서둘렀지만 아버지의 임종은 뵈 수가 없었다. 뒷모습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몰랐기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 해 봄날은 유난히 추웠다. 한바탕 내린 비 냄새도 반갑지가 않았다.

아버지의 유년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전부가 묻어있는 나의 고향엔 아버지의 젊음이 있다. 어느새 나는 아버지의 멈춰진 시간보다 더 살아내고 눈가에 주름도 자리 잡혔다. 하지만 매년 바다로 가고 싶다 하시던 아버지의 소리가 울리고 그 자리에 뿌리내린 팽나무의 푸르름에 공존하는 아버지와 봄날이 온다.

여전히 아름다우신 나의 아버지.

**작품평**

○○ ○○도 ○○마을이 고향이군요. 그곳에서 선장 겸 선원을 하신 어부 아버지와 추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는 아주 뛰어난 수필입니다. 간결하지만 진한 감동을 주는데, 문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한 개도 없는 깔끔한 작품입니다. 수필가의 자질이 분명히 있으니 계속 글을 써보기 바랍니다.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곧 봄이 옵니다



정진우

**고향을 생각하면 누구나 따뜻한 봄을 한 번쯤 떠올리곤 합니다.** 바람이 차가운 추운 겨울에도 고향을 생각하면 그 따뜻한 단어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에 외투 없이 거리를 걸어도 따스한 온기를 느끼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은 선선한 바람과 밝은 햇살 아래에서 벌써 봄이 온 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정취에 빠져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향을 생각하면 유독 “봄”이 생각나곤 합니다. 가끔은 종교집회나 접견을 위해 교정 내를 거닐다 보면 여름에 맡았던 풀내음, 꽃내음이 아직도 간혹 느껴지곤 합니다.

이제는 곧 이 교정에도 낙엽과 차가운 바람은 가고 붉은 철쭉과 진달래 그리고 용기종기 모여있는 개나리들도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모습을 드러내겠지요. 그럴 때면 폐에 있던 공기를 한번 뱉고 입을 꼭 다물고 코로 공기를 있는 힘껏 깊게 들이마시면서 어느 사이엔가 다가온 봄의 공기를 느껴보기도 합니다.

올해의 겨울은 저같이 추위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유독 혹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대단했던 위세를 떨치던 동장군도 쓸쓸히 뒷모습을 보이며 다가온 따뜻한 봄에게 이 계절의 자리를 양보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추운 겨울은 폭설과 혹한으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추위에 약한 사람들은 어서 이 계절이 끝나길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 계절 겨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 봄이 온다는 희망이 없다면 어떨까?” 아마 그런 희망이 없다면 지금 같은 겨울이 훨씬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혹독하여도 폭설로 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이 겨울은 반드시 곧 가게될거야 그리고 봄이 올거야 향기 가득한 따스한 봄이 올거야라는 믿음과 기대로 이 계절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희망은 춥고 긴 겨울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희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고 혹독한 겨울 같은 때가 인생에서 한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자녀의 말썽일 수도 있고, 배우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꿈을 포기하고 긴 밤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사별의 깊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반드시 봄이 온다는 희망이 없다면 이런 춥고 어두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혹독하고 추웠던 긴 겨울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지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누리던 자유에 대한 갈망과 통제된 일과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환경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낯선 이들과의 단체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우리는 삶에서 가장 힘들고 혹독한 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이 겨울을 이겨내기 힘들고 춥다고 느껴진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 말고도 인생에서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는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는 종교적 신앙으로 이 겨울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자신의 개발과 학습을 통하여 이겨내기도 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이 길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가슴에는 모두 이 길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스한 꽃내음이 가득한 고향같은 봄이 올거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혹독했던 겨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오듯 우리의 삶에서 긴 겨울같은 교정생활도 반드시 성찰하고 참회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따스한 봄이 오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겨울같은 교정생활이라도 일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 교정생활이 끝나고 난 후 여러분 모두 각자가 바라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향이 사랑하는 연인의 곁일 수도 있고 옛 친구의 곁일 수도 있으며 따뜻한 가족의 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쩌면 홀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이 경험한 이곳에서의 생활은 긴 인생의 겨울을 버틸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봄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반드시 봄은 돌아옵니다.



**작품평** : 고향은 봄입니다. 작가의 표현처럼 봄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춥고 긴 겨울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곧 봄이 온다는 마음으로 가슴 따뜻한 세상을 기다리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분명한 작품입니다.

## 바느질하는 남자



신영철

**앗! 파가워.** 바느질하던 중 깜박 졸다 나도 모르게 바늘 끝이 손가락에 파고들어 빨간 핏방울이 맺혔다. 바늘 끝에 찢린 순간 ‘번개 불에 콩 튀겨 먹는다’라는 속담처럼 말초 신경을 자극해 감졌던 눈이 뜨여 정신이 번쩍 난다.

나는 ‘바느질’ 하는 남자다.

그렇다고 슈트를 만들기 위해 전문 양복장에서 가봉을 하거나 세탁소 운영하며 옷 다림질과 수선하는 사람 또한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옷 수선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을 다해 구슬땀을 흘리며 ‘바느질’하는 수용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죄를 범해 법의 심판을 받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누구나가 한 번쯤 경험한 일 중 하나가 ‘바느질’이다.

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가장 먼저 관에서 지급받은 것이 죄수복(이하 관복)이다. 바늘과 실을 사용해 관복 상위 옷 오른쪽 가슴 앞에 거주해야 할 사동과 방 거실 표시, 또 왼쪽 가슴에 칭호 번호인 수번을 꼼꼼히 정성 들여 대칭되게 부착한다.

이에 처음 바늘귀 구멍 속에 실을 끼워 ‘바느질’하는 나의 모습은 너무 생소한 일이 아닐 수 없었고, 사실 초라해 보였다. 처음 받아본 관복은 생활 터전 하나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집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초라한 내 모습에 형용할 수 없는 경악과 충격에 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급받은 관복은 수년 동안 몇 명의 수용자가 거쳐 입었는지조차 모를 만큼 이곳저곳이 낡고 헤져 단추와 지퍼 하나 멀쩡한 것이 없이 쳐다볼 수 없었다. 심지어 관복 상위는 들녘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고, 쌀자루만큼 커 보이는 하위 바지는 우스꽝스러운 광대 삐에로 바지와 다를 바 없었다. 생에 처음 접한 ‘바느질’은 훼손된 단추와 지퍼를 수선하고 허리 치수에 맞게 줄여 입어야 했다.

한순간 번개처럼 빠르게 생각난 것은 악취 냄새 진동하는 물과 썩은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연꽃을 회상하게 됐고, 깔끔하고 예쁘게 수선한 관복에 만족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지금 비록 관복이 낡고 헤져 보잘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음주 운전 죄에 대한 반성, 후회, 다짐, 성찰의 시간을 갖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출소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속과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수백 번 다짐하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거둬들였다.

수용자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건강을 위해 구내 청소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춘하추동 계절에 맞는 관복으로 번갈아 바뀌었고 ‘바느질’하며 옷 수선할 때마다 하루가 짧게 느껴져 슬기로운 수용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다.

정원 100명의 구내 청소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1년여 시간 동안 호흡 맞춰 일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차이를 보여 때로는 말다툼과 폭력이 오가고 조사 수용돼 징벌 등을 받아 독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가석방 마저 취소되는 한편 수용자 처우 등급마저 한 등급 강등되어 타 교도소로 이감 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나는 이럴 때마다 ‘바느질’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내하고 복잡한 마음을 달래며 지금껏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느질’이 함께해서가 아니었나 싶다.

필자는 그동안 동료 구내 청소원들의 관복은 물론 작업복과 조끼, 심지어 티셔츠 등을 고참이 된 현재 스스로 자처해 가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십여 벌에 달하는 옷을 즐겁게 수선해 주며 나뉠 보람을 찾고 있다.

가히 세탁소, 인간 재봉틀 이란 별명을 필자는 정성 들여 한땀 한땀 ‘바느질’하는 시간 만큼은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해 가족의 안위와 미안함에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수백여 차례의 다짐과 약속을 해 왔다.

또, 수십여 벌의 관복이 구겨져 ‘다림질’할 때마다 50대 중반의 사람을 살아오면서 잠시 잠깐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구겨진 비양심에 미안함을 갖고 앞으로 옳고 좋은 생각을 갖자고 ‘다림질’해 왔고 앞으로 출소하는 그날까지 ‘바느질’하는 남자로 살아갈 것이다.

앞서 필자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일을 천직이라 생각하시던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을 받아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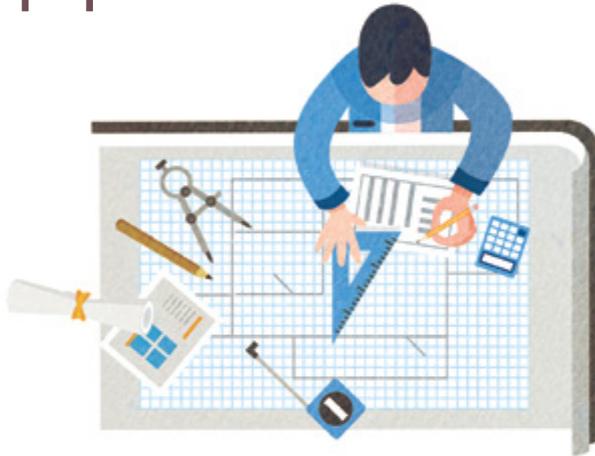
전등 밑에서 형이 작아 입지 못하던 동내의를 나에게 물려 주시려고 무릎에 구멍을 밤새 ‘바느질’하시던 어머니가 간절히 생각나 오늘 밤은 늙고 나약해지신 어머니의 품속에 잠들고 싶지만, 영어의 몸이 된 불효자는 울고 싶다.

끝으로 따뜻한 흠내음을 맡으며 눈 녹고 새우는 고향의 향수에 젖고 싶다.



**작품평** : 한땀 한땀 관복을 바느질하고 구겨진 주름을 다림질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구겨진 비양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바느질하는 남자, 인생에서도 멋진 바느질과 다림질을 기대합니다. 비유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 영광의 산업기사 2년 과정을 마치며



김효기

**드디어 산업기사 시험 결과 발표일 날.** 선생님이 합격/불합격 결과가 든 쪽지를 쥐고 훈련생들 앞에 섭니다. 두근두근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며 모두들 애타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발표를 기다립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틱을 너무 들이시는게 야속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긴 서론이 끝나고 결과를 말씀하시는 선생님. 곳곳에서 환희와 기쁨의 포효 또는 절망의 한탄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저의 당락 결과는...

때는 2021년~2022년 저는 ○○직업훈련교도소에 있는 2년 과정의 실내건축산업기사를 지원했습니다. 맨 처음 왔을 때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실내건축'이라고 해서 미장·타일 같은 공사 현장 관련한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건물의 설계도면을 제도하는 실기과정이었죠. 평면도, 천장도, 입면도, 투시도... 처음엔 용어도 생소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복잡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재료의 성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 의도에 맞게 공간을 나누고 가구들을 배치해야 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전 도저히 이 분야(?)와는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적도 여러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창피한 일이라 이 악물고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만큼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희한하게도 다른 분들은 원래 관심이 있던 분야라고 하시면서 곧잘 따라 하시더군요. 저에게는 어렵없는 소리였지만요. 그래서 자주 주변 분들께 궁금한 것을 여쭙 보았는데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따스한 분들이셨죠.

그렇게 2년 동안 그린 설계도가 몇 백개는 훌쩍 넘길 무렵, 그 기나긴 과정의 종지부를 찍는 실내 건축산업기사 실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크게 남는 시험이었지만 어떻게든 제도를 끝마치고 결과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 한달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떨어질까, 붙을까 조마조마 하던 그 심정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일 겁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다른 분들과도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다 합격을 하셨기에 더욱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고생을 하며 2년간 끈질기게 걸어온 과정은 물론 버겁고 힘들었지만,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고나니 과거의 모든 설움이 싹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2년 과정을 지나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귀찮으셨을 텐데도 꾸준히 저의 공부를 봐주신 형님들이 없었더라면 저 또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을 겁니다. 죄송했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담하건대, ○○직업훈련소는 다른 곳



보다도 대우가 훨씬 좋고 개개인이 공부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다른 재소자분들이 직업훈련을 계획 중이시라면 ○○직훈을 신청하시는 것을 과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건축 설계와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내건축 과정이 들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길었지만 그 결실 또한 무척이나 달콤했습니다. 두번의 사계절을 보내며 제가 느꼈던 파스함과 벽찬 감동을 다른 분들도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직훈생들은 모쪼록 현재 몸담고 계신 그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도 오늘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작품평** : 2년의 긴 과정을 잘 마치고 실내건축 산업기사의 영광을 안으신 멋진 결과를 축하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꼭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한 감정과 진실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써 내려간 우수작입니다.

## 나의 59해의 아주 특별한 외출



정의옥

2022년 11월 10일 나의 59년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슴 아픈 절망이란 단어가 나의 목을 죄어 오면서 오랜 숙제가 될 아주 특별한 외출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앞날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옛말에 실감이라도 한 듯 제발 꿈속이기를 바라며 몇 번이고 꼬집어도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화될 나의 특별한 외출.

며칠을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다 아들의 편지를 받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보 같이 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주한 것도 아니고 나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자책하지 말자”

“나에겐 돌아갈 내 자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나를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친구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외출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차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안정된 마음으로 나의 59해의 아주 특별한 외출을 받아들였다. 나와는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한 이곳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먹고, 자고, 싸고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

단, 자유가 없고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 빼고는 평온한 일상의 연속이고 얼마간의

특별한 외출일 뿐이라고... 어차피 나의 삶에 찾아온 특별한 외출의 시간은 나의 여생을 또 다른 반전의 삶을 보내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에겐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하게 되었다.

800감사와 매일 5감사 쓰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부여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소화행의 진가를 충분히 만끽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고 있는 내 안의 또 다른 새로운 나를 보는 것이 행복하고 가슴 뭉클하고 감사하다.

까칠하고 급한 나의 성격도 말하거나 행하기 전에 “3초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할 줄 아는 법을 배웠고, 나의 힘들고 버거운 일들을 혼자 끙끙 가슴앓이하고 혼자 해결하던 바보 같은 성격도 이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의논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매일 나에게 3가지 칭찬하기와 하루 일 중 나에게 3가지 감사 쓰기를 매일 하면서 이 세상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임도 깨닫게 되었다. 산다는 것에 정답이 어디 있을까 마는 나의 특별한 외출에서는 나를 돌아보는 여유와 마음 챙김의 계기가 된 그것만큼은 나만의 정답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던 나.

그럴 필요가 없음...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는 나만의 정답.

모든 인간관계는 늘 원만해야만 된다는 내 생각이 모든 인간관계가 꼭 원만할 필요는 없다는 나만의 정답.

남편은 왜 나하고 저렇게 틀릴까 생각하며 원망하던 내 생각은 남편은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게 된 나만의 정답.

항소심 날짜만 가슴 콩콩거리며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처음 접하는 새길지 “봄호” 테마원고 제출 안내를 보는 순간 이곳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늘 나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나만의 정답에 펜대를 어설프면서도 자유롭게 그려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슴 벅찬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다.

앞으로 아주 특별한 외출의 시간에서는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나만의 정답의 노트를 채워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최대의 과오를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주어 나의 특별한 외출은 내 인생에서 더욱더 값지고 가치 있고 소중한 아주 특별한 외출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맘을 가져본다.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나의 특별한 외출에서 찾은 “나만의 정답”을 예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아낌없이 나누면서 펼쳐 나아가길 소망해 본다.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는 사랑하는 동생이 인터넷 서신으로 보내온 글귀를 인용해본다.  
“세상에 그 어떤 꽃도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다. 지금 흔들리는 것 나는 괜찮아...!”  
모두가 다 잘 될 거야~ 그래 모두 다 괜찮아 질 거야~ 그래 모두 다 제자리에 있을 거야...

이렇게 나의 일상이 되어 버린 59번째의 생일과 50대의 마지막 날과 60대의 첫날을 맞이한 나의 59해의 아주 특별한 외출은 현재 60일째 ~ing이다.



 **작품평** : 매일 3가지 칭찬하기, 3가지 감사 쓰기 는 함께 실천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는 행복한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만의 정답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섬세하면서도 서정적인 글입니다.

## 봄을 기다리며

안정훈

**늦은 밤 잠에서 깬다.** 문득 창밖으로부터 들어온 바람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겨울 속으로 깊숙히 들어서고 있는 이 시기. 어느때 부는 바람에는 싯맛어린 알싸한 고드름 냄새와 희고 달달한 박하사탕 향기가 섞여있다. 그 냄새는 나를 어렸을 적 기억속으로 돌려 보낸다.

겨울이면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은 건조장에서 말린 담뱃잎을 꺼내어 마을회관 사랑방에 쌓아두고 둘러앉아 저녁 늦게까지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 어린 나는 사랑방의 아랫목에 누워 마치 기계와도 같은 담뱃잎 선별작업을 즐다 깨다 지루하게 바라봤다.

어머니는 늦은 저녁이 되서야 고단한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웠고 조그마한 아들이 팔을 다그쳐 집으로 이어진 골목길을 걸었다. 동네 골목길 집들위의 물결치는 슬레이트 지붕 끝에는 당근을 매달아 놓으듯 고드름들이 뻑뻑했다. 웬지 기괴해 보이는 그것들을 눈으로 훑으며 어린 나는 바쁜 어머니의 손을 놓칠까 작은 보폭을 재촉하며 숨을 헐떡였다.

그럴때마다 어린 폐속으로 그 싯맛나는 고드름 냄새가 거친 파도가 되어 실새없이 밀려 들었다. 집에 가까워진 어디쯤이 되면 어머니는 혀끝까지 숨이 차오른 나를 멈춰 세웠다. 그런 후 낡은 스웨터 주머니 속 신문지로 쌓아둔 박하사탕 한개를 꺼내어 의식이라도 치르듯 나의 입속에 넣어주고는 서리맞은 사과처럼 거칠고 붉어진 아들의 두볼을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 골목길, 그 공간 속 어머니의 몸에서는 고드름, 박하사탕, 잘 말린 담뱃잎의 냄새가 뒤섞여 기분좋은 향기를 뿜어냈다. 고향의 겨울 골목길에서 맡았던 어머니의 그 냄새를 나는 지금 창밖으로 부터 들어온 바람에서 맡은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는 이른 봄이 되면 어린 아들의 기억 속 그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불어오는 바람에서 아들의 냄새를 맡게 될지도 모른다. 아지랑이가 안개가 되어 흐느적 피어오르는 그런 봄 어른이 된 아들은 늙어서 어려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봄 두릅나무의 손을 따라 그 골목길을 함께 걷지 않았던가. 골목길 옆으로는 잊혀진 유적지의 무너져가는 성벽처럼 돌담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그 돌담 안에는 두릅나무들이 부지깽이들을 쫓아 놓은 듯, 아무렇게나 자라서 지천을 이루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어른이 된 아들과 아이같은 어머니는 골목길을 돌며 두릅나무 새순을 비닐포대 한가득 따아담고 집으로 이어진 그 길을 되돌아왔다. 어머니는 두릅나무 새순 향기가 가득한 아들의 발걸음을 놓칠세라 짧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집에 가까워진 어디쯤이 되면 아들은 고단한 어머니를 멈춰 세웠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흰색 봉투에 넣어둔 용돈을 꺼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린 기억 속 박하사탕을 입에 넣어주던 어머니의 의식처럼 용돈을 손에 쥐어 드리고 마냥 흐뭇했다.

어쩌면, 어머니는 이른 봄이 되면 그 골목길 돌담 안으로 지천인 두릅나무순을 바라보며 오지도 못할 아들의 냄새를 맡아보려 한없이 조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알고 있다. 어른 아들의 기억 속, 그 골목길 겨울은 이제 쉽사리 지나갔으며 어린 어머니의 소망 속, 그 골목길 봄은 반드시 찾아 온다는 것을...

먼 훗날, 어른 아들과 어린 어머니의 추억 속에는 항상 박하사탕 향기만으로 가득한 그 골목길을 손을 잡고 한없이 걷고만 있다.



**작품평** : 고향은 우리들의 안식처이고 추억의 장입니다. 고향의 정서를 어머니의 냄새와 건조장의 담뱃잎 냄새와 연결하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박하사탕에 담긴 그리운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우수작입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오봉장생도 | 인간의 장수를 염원하는 그림으로 화려한 채색과 신비로운 구성이 특징이다(이미지출처: 이우지엄 - 국립고궁박물관)

## 조선인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불로장생의 염원 심장생도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이 행복하고 오래도록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삶에 대해 새삼스러운 사실을

절감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지난날의 삶에 대한 회한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되지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제발 하루 만 더 있었으면...' 하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절실한 마음의 반영이겠지요. 굳이 임종을 앞두고 있지 않았어도 웬만한 나이가 된



자수 수복문자도 8폭 병풍(刺繡壽福文字圖八幅屏風)

영원히 늙지 않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그림이다. 장생불사와 복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글자를 아름답게 꾸몄다.  
(이미지출처 : 미유지엄 - 국립민속박물관)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삶이란 것이 참 짧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는 삶에 더욱 집착하게 되지요.

이렇듯 생과 사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한 문제이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늙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염원하는 여러 의식이나 민속 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림에서도 장수를 염원하거나 축복하는 그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장생도(長生圖)>라 부르는데, 예를 들면 <백수도(百壽圖)>, 혹은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병풍에 목숨 수(壽)자를 백 개나 가득 써넣거나, 복 복(福)자를 써넣은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를 먹으면 천 년을 산다는 천도복숭아 그림 등이 있습니다. 그중 회화적으로

매우 빼어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형식의 그림이 바로 <십장생도(十長生圖)>입니다.

<십장생>은 보통 해·구름·산·물·바위·학·사슴·거북·소나무·불로초 등을 꼽지만 그림 속에는 대나무와 천도(天桃) 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즉 <십장생도>는 이름처럼 반드시 10개 소재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산수와 동식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진하고 화려한 색채를 써서 환상적인 분위기의 이상 세계를 연출한 그림을 말합니다. 장수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십장생을 정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식입니다. 십장생을 주제로 그렸지만, 장생의 상징이 반드시 10개가 아니었기에 그냥 장생도(長生圖)라고도 부릅니다. 또 대상 중 한 가지만을 강조하여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학을

강조하면 <군학십장생도(群鶴十長生圖)>, 사슴을 위주로 그리면 <군록십장생도(群鹿十長生圖)>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십장생도>의 전통은 고려 시대에 비롯되어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이러한 양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고려 말의 기록에 이 그림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고려 시대에 이미 <십장생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림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현재 전하는 것들은 대개 조선 시대 후기의 것들입니다.

장수에 대한 염원은 지체 높은 왕실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궁중에서는 왕비나 왕세자처럼 중요한 인물 뒤에 <십장생도>를 놓았습니다. 또 궁궐 내부의 창호에도 십장생의 문양을 그려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국왕의 옥좌 뒤에 두르는 장생을 기원하는 병풍을 <일월병(日月屏)>이라 하는데, 장생의 의미뿐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상징합니다. <일월병>에는 해와 달, 오봉산, 물결을 수놓거나 곱고 진한 채색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해는 남성의 상징으로 권위를 상징하고, 달은 여자를 의미하며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생병은 점차 일정한 형식으로 정착되어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로 표현되게 됩니다. <일월오봉도>는 궁궐 정전 임금이 앉는 옥좌 뒤편에 놓입니다.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병풍으로 <일월오악도>, <일월곤륜도> 등으로 불리는 이 병풍은 오로지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이 내린 사물들로 가득합니다. 초승달이 차츰 차올라오며 보름달이 되는 것,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日), 산의 장수와 소나무와 잣나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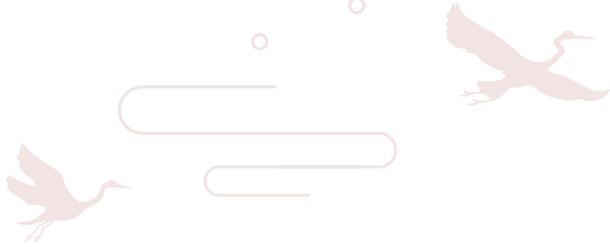
상록수의 번성과 푸르름 등은 자연의 현상이자 불변의 법칙이지요.

십장생도는 그림뿐만 아니라 도자기·나전 공예품·목 공예품·자수품·벼루 및 건물·벽의 장식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경복궁의 경회루 옆 아미산이라는 작은 언덕에 있는 굴뚝입니다. 이 굴뚝은 연기를 뿜어내는 기능적인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장생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꽃담과 더불어 장식된 다양한 문양 장식은 예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경복궁의 동쪽 편에 자리 잡은 자경전은 경복궁 내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그 담장을 장식한 아름다운 문양의 꽃담은 특히 유명합니다.

본래 장생, 혹은 장생불사를 주장하는 것은 도교입니다. 신선이라는 말 역시 도교의 용어이지요. 신선의 선(仙) 자는 人 + 山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신선이란 산으로 가 신과 같이 되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래 신선의 선(仙) 자는 선(僊) 이었는데, 이는 춤추듯이 가볍게



**백수백복도** | 목수 수자와 복 복자를 백개씩 그려 넣어 만든 병풍이다. 장식적으로 화려한 도안화된 글자에 더하여 등장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모두 장수와 행복을 축원하는 그림이다(이미지출처 : 이무지엄 - 한국민화박물관).



십장생도10폭병풍 |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림 형식으로 우리 선조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소산이다(이미지출처 : 이뮤지엄 - 국립중앙박물관).

하늘로 날아오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신선을 우인(羽人)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은 날개가 달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선이란 본디 인간과는 별개의 신과 같은 존재로 인간에게 불사약을 가져다주는 구원자 적 존재였으나, 시대가 지나고 도가, 그리고 도가 사상이 종교화된 도교와 결합함으로써 보통 사람이 수행을 쌓아 깨달음을 얻어 될 수 있는 경지로 여겨졌습니다.

신선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반 음식을 끊고 금단(金丹), 외단(外丹)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약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단(丹) 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도교와 관련 있다고 이해하면 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은 언젠가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미친 것이 수은과 같은 것을 이용하면 시체도 잘 썩지 않으므로, 산

사람이 먹으면 아예 불로불사를 이루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잘 알다시피 외단 약의 성분은 현대의 관점으로는 결코 식용할 수 없는 해로운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특히 도교 수련에서는 특히 수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설을 믿고 중국의 여러 황제와 고관대작들, 특히 당나라 때 사람들이 중금속으로 만든 외단 약을 먹느라 명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외단이 실패해도 비법을 몰랐거나 부정을 닦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가 수백 년 넘게 이어지자 점차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원래 인간의 몸에는 단전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호흡 등 어떤 수련을 하여 자연의 기를 모아 단(丹)이라는 것을 형성하면 신선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단'은 사람이 만들어 먹는 단, 즉 외단에 대비하여

내단(內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전호흡의 기본이 된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방중술입니다. 이는 성적 쾌감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몸의 정기인 정액을 방출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오르기슴을 최대화하면서 사정을 하지 않으면 몸의 정기가 낭비되지 않아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사물들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제일 위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해입니다. 해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변함없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바로 햇볕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요. 날마다 쉼 없이 변함없이 동쪽에서 떠 영원히 세상을 비추니 바로 영원불멸을 상징합니다. 과학적으로 오늘의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살 정도이며, 앞으로 남은 수명은 약 80억 년 정도라 합니다.

또 <십장생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산입니다. 산은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로 신을 모시는 성역을 상징합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산악신앙이 있었는데 전국시대 이후 오행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악, 즉 다섯 개의 산 관념도 생겼습니다. 오악은 동쪽의 태산, 서쪽의 화산, 남쪽의 형산, 북쪽의 향산, 그리고 중앙의 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서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도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삼각산, 지리산의 오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산은 <일월오악도>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가운데 우뚝한 산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좌우를 보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산은 세속적인 곳, 삶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은둔처이며 이상향의 상징입니다. 즉, 혼탁한 현실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야인 정신, 선비 정신을 고결하게 지켜 낼 수 있는 지상의 또 다른 맑은 세계로 인식하였고 기개, 지조, 충절의 표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더불어 산은 늘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변치 않는 장생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력과 정화력, 부정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여성적인 생산력의 상징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은 맑음, 깨끗함, 변화, 순리, 너그러움, 조급함 등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마르면 구름이나 안개로 변했다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파도치며 물결을 만들어내는 모양은 바로 장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돌 역시 십장생 중 하나입니다. 돌은 견고함과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장생의 의미로 해석되었지요. 이에 더하여 생산력과 창조력, 신비로운 응결력 등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서낭 바위, 마을 수호신 등으로 섬겨지곤 했습니다. 바위가 견고함이나 불변의 의지, 고고함, 영속성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원을 수석이나 괴석으로 치장하고 괴석도나 절벽, 바위 봉우리 등을 즐겨 그린 것도 돌의 이러한 상징성에서 비롯한 것이지요. 옛사람들은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돌을 꼽아 수석도(壽石圖)를 즐겨 그렸으며, 탑을 쌓아서 장생불사의 돌 신앙을 빚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구름 역시 십장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구름은 물이 하늘로 올라 변한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고 흘러 다닙니다. 이는 신선이 사는 이상향의



상징이자 세속을 초월한 특별한 경지를 나타냅니다. 구름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나타났다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바로 장생불사의 또 다른 현상이지요. 구름은 바로 상서로운 기운을 나타내는 장생의 상징입니다.

소나무는 초목의 군자라 일컬어지며 절개 또는 지조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혼례식의 초례상에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를 꽃은 꽃병 한 쌍을 남쪽으로 갈라놓는 것은 신랑 신부가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곧은 절개를 지키라는 뜻에서이지요. 또 소나무는 추위에 잘 견디고 엄동설한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장생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항상 푸르다는 점에서 역경을 만났을 때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벗의 의미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지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장생불사의 식품으로 술잎과 술 씨를 먹었다고 합니다.

장생의 상징으로 종종 등장하는 것은 학입니다. 학은 신선의 탈것으로, 천년 만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청학이 되고, 다시 천 년이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여 현학이 되는 불사조로 믿었습니다. 천년을 산다고 하니 당연히 장생의 상징이 되었지요. 학은 자태가 청초하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여겼는데, 조선 시대 선비들이 평상시에 입던 학창의(鶴擎衣)는 학의 모습을 본떠 만든 옷입니다. 흰 바탕의 창의에 깃과

군학장생도 벽장문 | 천년을 산다고 알려진 학의 무리를 주제로 장수를 축원하는 그림이다(이미지출처 : 이뮤지엄 -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굴뚝**

굴뚝에 새겨진 십장생 문양의 벽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굴뚝으로 손꼽히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이미지출처 : 문화재청).

소맷부리, 도련의 돌레를 검은색으로 둘러 학처럼 깨끗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이지요.

학과 더불어 거북은 수명이 길고 물과 물에서 사는 특성으로 인하여 신성한 동물이자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흔히 거북은 천년을 산다고 하니 당연히 학과 더불어 장수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는 동물이지요. 신라 시대의 유명한 구전 가요인 「구지가」에서 거북은 신성한 군주의 출현을 촉구하는 백성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는 신의 사자였지요. 또 거북은 앞날을 미리 점쳐서 알려 주는 동물로 인식하여, 거북의 등딱지로 길흉과 운세를 보는 귀북이라는 거북점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슴의 뿔은 봄에 떨어지고 다시 새 뿔이 돋아나니 영생이나 재생의 상징으로,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장수의 영물로 전해집니다. 천 년을 살면 청록이 되고,

다시 오백 년을 더 살면 백록이 되며, 또 오백 년을 더 살면 흑록이 되는데 검은 사슴은 뼈도 검어 이를 얻으면 불로장생한다고 합니다. 또 고구려에서는 3월 3일에 사냥을 하여 잡은 멧돼지와 사슴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사슴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동물이다 보니 사슴은 신선의 벗이자 시종으로, 상상의 동물인 기린과 닮은 작은 기린으로 여겨졌으며, 어질고 인자한 짐승으로 신선이나 도인의 품성을 갖춘 동물로 인식되며 십장생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 이 시조에서 이이는 물과 더불어 바위를 수석으로 일컬으면서 자연 풍취의 정수와 자연의 이치가 지닌 초월성을 그렸다.

다음으로는 불로초가 있습니다. 불로초는 말 그대로 한번 먹으면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신비의 풀로 장수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지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은 장생불사를 추구하여 서복(徐福)이라는 도교의



자경전 굴뚝 벽화의 부분으로 하늘을 나는 학과 상서로운 구름, 사슴 등의 이미지가 보인다(이미지출처 : 문화재청).

도사에게 불사약을 구해 오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지요. 서복은 젊은 남녀 500명을 이끌고 동해에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으로 불사약을 구하러 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정방폭포와 경남 거제 등지에 '서복이 다녀갔다'라는 글귀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서귀포라는 지명 역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의미라 합니다. 중국에서 보면 동쪽은 우리나라이고, 봉래산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서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러 우리나라에 왔었다는 전설은 피나 신빙성이 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로초는 대개 풀잎처럼 생긴 잎이 함께 그려 집니다. 불로장생을 얻는 일은 “원하던 바의 뜻과 같이 된 일”입니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여의(如意)가 됩니다. 용이 입에 물고 있다는 여의주가 바로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구슬임을 생각해 보면, 여의란 마음 먹은 대로라는

뜻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로초를 흔히 영지버섯이라 하는데, 그 모양이 약간 구부러진 구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불교의식에서 사용하는 여의라는 도구와 매우 비슷해서 불로초의 생김새는 살짝 구부러진 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장생의 종류에는 해·산·물·돌·구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에 따라 대나무나 복숭아 등 몇 종류가 제외되거나 혹은 다른 것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해, 산, 돌, 구름 등은 무생물로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불로초와 대나무, 복숭아 등은 식물, 거북, 학, 사슴 등은 동물로 구분됩니다. 이렇듯 십장생의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저 오래 사는 것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을 통하여 장생불사, 혹은 영원성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이 우리 선조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아름다운 <십장생도>로 표현된 것을 보면 이는 분명 우리 민족의 타고난 창의성을 잘 드러내는 뛰어난 문화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박준신

저는 2012년 몸 건강 이상으로 지인을 통해 휴양차 ○○도에 왔다가 ○○에 매료되어 정착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소재 바닷가 바로 앞 해녀 탈의장을 손수 수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지난 시간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 환경 여건상 자재와 인력 문제 등을 알고 있기에 새로운 건축 방법을 생각하였고 과거 경험을 생각하여 ‘암거주택’ 방식을 시도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저 짧은 패기와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마침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30평 2층 주택을 2012년 12월 시작으로 건축 사업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지속해서 말 그대로 열심히만 하였습니다. 수지 분석도 없이 지난 시간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는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외형적인 건축물만 잘 완성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이어갔고 이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도중 지속해서 특허를 등록하여 즐거움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 속에서 살았으며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계획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누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 갔지만 지금의 아내에게는 자기 심장 외에도 작은 다른 심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포기를 해야 했겠지만 지나친, 긍정적인 특허에 대한 기대감에 포기하지 못하고 저는 한 번 더 무리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2018년 봄날, 아들이 태어나고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이어가고 아들의 백일잔치도

##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기에 아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분의 권유로 건축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9년 8월에 어린아이와 아내와 함께 차량에 짐을 한가득 싣고 ○○ 킨텍스 박람회에 참여를 시작으로 지금의 많은 피해자분을 만나고 계약하면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계획과 수치 분석 없이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전문가인 것처럼 저 자신을 특히로 포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 가족분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저 자신의 욕심으로 평생을 지을 수 없는 상처, 배신감, 가족 간의 불화 등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 지금 피해자분들에게는 현실로 살고 있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멀리하여 혼자 수감되어서야 저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지속해서 던지면서 그때 멈추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기에 지금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아침 5시 30분에 씻고서 제일 먼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징역 5년을 확정받는 날, 재판장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피해자분의 박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으면... 또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소로 재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학창 시절 못다 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2022년 합격하였고 지금은 2023년 직업훈련생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인성과 함께 사람의 기본적인 작은 실천부터 모두 다시 시작하고 배우려 합니다. 다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족과 함께 할 때 저는 피해자분들께, 가족분들께 피해회복을 위하여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해자분들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평 :**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나 기업이 잘될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휴양차 갔던 ○○도에서 건축사업과 기술개발을 열심히 했다면 되었을 것을 욕심을 냈군요. 무리한 사업확장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5년형을 받아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인생 공부를 단단히 하고 계시네요.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자동차 정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5년제 대학교를 다닌다 생각하고 열심히 출소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 소리를 듣되 이번에는 그 박수가 응원의 박수로 바뀌기 바랍니다.

## 용서의 글



조옥순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간의 모든 재판을 마치고 현재 ○○○○가 본소가 되어 수감 중인 조옥순이라고 합니다. 2021년 겨울 문턱에 막 들어설 구속이 되어 다시 겨울을 맞이하였고 이제는 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구속된 후부터 지금까지 짧지만은 않은 시간 속에서 매일같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어디서부터, 무엇때문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백일 때부터 엄마란 존재 없이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저에게 엄마가 없다 보니 혹여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까 봐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하게 해주셨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돈 걱정 없이 자라온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제 용돈 외엔 모든 걸 아버지께서 관리해주시는 바람에 돈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돈 개념없이 살아온 저는 홀로서기를 해야 할 사유가 생겨 2년 정도 홀로서기를 하였고 2008년 아이 아빠를 만나 아이가 생겨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어 제가 자라온 환경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꺼라 생각했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은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부터 일을 하지 않는 아이 아빠로 인해 돈에 대한 걱정없이 자라온 저는 돈 한푼 없는 생활이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이기에... 또 아이 엄마이기에 가정을

## 용서의 글

---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면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옳진 데 덮친 격으로 아이 아빠가 희귀성 난치병이 생겨 막막한 생계가 더욱 막막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건 없고 병원비와 생활비, 학비로 인해 빚만 늘어가던 찰나 같이 일했던 언니의 꺾임에 빠져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란 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던 제 어리석음과는 달리 한곳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또 다른 한곳의 피해자를 만들어야 했던 저의 부덕한 욕심, 탐욕, 처해진 환경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무너진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피해자분들이신데... 저로 인해 오늘이라는 시간에서도 고통 속에 계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픕니다. 따스한 봄이 다가오듯이 이제는 고통 속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사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그 후의 뉘는 제가 출소한 후에 꼭 갚을 것입니다.

어른이기에 책임져야 할 몫, 이곳에서 더욱 열심히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꼭 피해자분들께 보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작품평 :** 백일 때부터 엄마가 없이 자라났고 성인이 되어 결혼, 엄마가 되었다면 반드시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워야 했는데... 엄마 없이 자란 설움을 아이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었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편이 희귀성 난치병에 걸린 것이 나쁜 길로 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곁에는 범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출소 이후 여러 사람한테서 진 빚을 다 갚을 결심을 단단히 했더니 다행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불행이 끝나면 행복이 오고 시간이 가면 재회의 날이 온다고 믿고서 거기서의 생활을 늘 밝고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김진혁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8개월째 재판 중인 35살 김진혁 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여 마음의 상처와 가슴 아픈 기억,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이나마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저는 2012년 4월부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가족 친척없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선해양 사내협력사에 입사하여 Co2 용접기술과 아르곤  
 용접기술 에어라인 튜빙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였고 2015년 중순 사업의 기회가  
 찾아와 ○○○조선해양 사내 하청에서 조선업에 관련된 업종에서 직원 30여명을 데리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었고 사업시작 동시에 저는 결혼도 해서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함을 만끽하면서 아들까지 태어나 독재정치국가인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년 정도 사업 후 ○○○○○조선해양으로 사업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하청 하도급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행복, 기쁨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청대표가 저희 업체가 일한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자재비와 인건비, 총 공사대금 2억7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와  
 노동부조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 낭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체당금과 저의 사비로 해결해주고 저도 역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

사업 실패 후 생활고를 겪으면서 사업할 때 사용했던 카드빚과 세금문제로 힘든 생활이 지속되었고 저한테는 하나 밖에 없는 가족과도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가짐을 잘하지 못한 결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기망하고 금전적 피해를 가져온 결과 현재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의 무게를 알게 되었으며 모든 일에는 책임감이 따르게 된다는 것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회피하고 멀어지게 된다면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정글속으로 도피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정수감생활을 하면서 생활습관 생각습관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면 질병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변화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배웠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정수감생활을 통하여 욕심만큼은 다 갖지 못하더라도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 법무부와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감생활은 늘 반복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형기라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새로운 인생도전의 시작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교정생활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목적과 목표를 향해 쉽없이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평 :** 복한을 탈출한 지 11년이 되었군요. 기술을 배워 조선업 관련 하청업 일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원청 대표가 자재비, 인건비를 못 주고는 폐업 신고를 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카드빚과 세금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그대를 무너지게 했나 봅니다. 이후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했는데 못 갚으면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공짜로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 어머니, 죄송합니다



유병훈

저는 1989년 4월 19일 1남1녀 중 장남으로 전라남도 ○○에서 태어나 4살 때 아버지의 자살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어머니와 누나는 서울로, 저는 외할머니 외삼촌이 있는 이곳 ○○에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외삼촌의 이유없는 잦은 폭력에 괴로워하는 저를 외할머니가 새벽 이슬이 맺힐 무렵 야반도주하듯 도망치게하여 서울에 있는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픈 손가락으로 자랐습니다.

2019년 9월 18일 개인적인 억울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5일 만에 ○○구치소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에 대한 억울함, 분노, 좌절감으로 몸부림 치는 저에겐 구치소가 주는 중압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이 외롭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날이 서있을 대로 예민했고 사소한 문제로 근무자와 말다툼을 크게 벌였고 당시 이성이 작동했다면 CRPT 근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난폭해진 저를 제지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탄치 않은 수용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이 일로 징벌방 30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고통과 분노, 원망, 절망, 억울함 등이 중첩되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수용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가 접견을 오셔서 통통 부어있는 손을 보시며, 눈물맺힌 목소리로, 안에서 사고치지 말고 억울함은 뒤로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 보고 반성하며 지내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업보라고 역장이 무너지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다시금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이상의 불효는 없겠다고 결심하자 분노와 원망들은 차츰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심 구형을 받고 온 다음날 주말 오후 사동계장님 면담이 있다고 부르시기에

## 어머니, 죄송합니다

---

주말에는 면담을 하지 않기에 불길한 마음을 뒤로한 채로 갔지만 그렇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했고 엄청난 충격과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전날 구형을 받았고,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으셨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남기신 유서에는 너희와 함께여서 행복했고 즐거운 삶이었다. 병훈이를 미워하지 말고 누나에게 잘 챙겨주라고 마지막 글을 남기신 어머니... 구형 9년 소식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 곁으로 짧은 생을 살고 떠나신 어머니님, 그 절망 속에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자 저는 불효자입니다(어느덧 떠나신지 3년차에 접어들니다).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굳게 닫혀 있던 마음속의 감옥에서 나올려 합니다. 엄마 잘 지내지? 우리 늦지 않게 다시 만나자!

**작품평 :** 이보다 더 불행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살 때 왜 아버지께서 자살했는지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9년 구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 자살하고 말았다고요. 어머니가 남긴 유서에 너희 남매와 함께여서 행복했고 즐거웠다고 썼고 누나에게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잘 챙겨주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불효는 없겠지만 이미 언질러진 물을 물통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서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쓰임이 되면 누나가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의좋은 남매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만이 불효를 씻는 길입니다.

## 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김봉성

저는 40대 3딸의 멋쟁이 아빠였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이라는 무서운 병은 저와 막내딸(쌍둥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막내딸은 태어난 지 2주도 안 돼서 우리나라 최연소 ‘백혈병’ 판정을 받았는데 항암을 할 수 없는 나이로 10개월 정도를 ○○대병원에서 투병하다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 다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혈액암’ T세포 림프종에 걸렸고 모든 집안이 눈물바다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이 70%이상 몸에 전이 되어서 치사율이 80% 높다고 빨리 항암을 해야 한다며 다급하게 저희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던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항암을 시작하는 동시에 실감을 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순간순간들이 견딜 수 없게 저를 정신까지 뺏어갔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차례 항암과 조혈모 세포 이식도 받고 1년 2개월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외모까지 출중했던 저는 목소리도, 외모도 잃고 거기에 체격까지 작아져 머리카락도 없는 불품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모든 걸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친구도, 가족들까지도 피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창피해 보이고 이런

## 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나 봅니다.

그러나 역시 암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5개월 만에 재발이 되어서 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번에는 더 약도 독해지고 매순간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거라며 부디 전처럼 잘 견뎌주길 바란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항암 치료 동의서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 누구보다 그 고통을 알기에 손이 쉽게 가질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나 그냥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어” 아내는 땀방울이 바닥에 어린 아이 마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간절하게 제 손을 잡으며 “여보 포기하지 말자” “제발” 1차 때도 다 견디고 이겨냈으니 제발 치료를 받자 하며 하염없이 눈물로 호소하듯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아직 나에게는 소중한 딸 2명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없는 선택을 결정해 또 다시 힘든 항암을 감행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보다 독한 약품과 주사들 그리곤 2번의 이식수술까지 마치고 약 9개월 끝에 병원 생활을 졸업했습니다. 아니 잠시 외출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기에 누구 하나 위로가 되지 않고 무의미 속에 죽은 듯 눈만 뜨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다 그냥 다 싫었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란 것도 찾을 수 없는 저는 면역저하자라 아이들조차도 함부로 안을 수 없었습니다.

세균 감염과 혹 감기라도 걸리면 생명과 직결된 현 상태여서 더욱더 외롭고 쓸쓸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제외하고 딸과 아내가 독감에 걸려서 저는 어머니 집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살핌과 동시에 매일 기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2년 3개월의 긴 입원 치료와 비싼 의약품들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게들까지 손실이 크고 월세도 감당 못하는 아내는 잦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픈 저는 일을 할 수도 무리한 체력 소모도 할 수 없기에 결국은 도박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지금까지의 신용과 믿음을 담보로 금전 차용을 하였고 부동산 위조 계약서를 하여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고 죽고 싶은 마음에 산에 올라가서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간 막내딸 아이의 목소리와 웃는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고 방긋 웃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잦은 항암 치료로 분유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아이였기에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

---

지금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인가라며 발걸음을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받으려 재판을 받고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미안함을 전했고 아픈 몸으로 수용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걱정하는 가족과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 제 자신에게 너무도 미안함과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정작 용서를 구해야 했던 건 제 자신이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걸 나와 함께 해준 저 자신에게는 고통만 안겨 주었던 시간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여 피해를 끼친 친구와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에겐 당연히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비는 건 인간의 도리지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받는 건 제 자신인데 당연히 외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봉성아~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 내주고 암과 싸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또 너무 사랑한다. 비록 잘못된 판단에서 죄를 지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명하고, 긍정적인 봉성이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우리 이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더욱 건강해지고 잘 헤쳐 나가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못난 나이지만 늘 함께 해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작품평 :**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딸 중 막내를 최연소 백혈병으로 잃고 자신도 림프종 암에 걸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식수술까지 두 번 받고 일시 퇴원을 했는데 어찌하여 병원이 아닌 구치소에 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니 어찌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마도 내 마음이 아픈 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요. 아침에 새 소리를 듣고도 살아 있다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와 재회하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거지요?

# 용서를 구합니다



심명보

저는 현재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심명보라고 합니다.

어느덧 재판이 10개월이 지나가고 그 사이 새해가 되었고 나이도 31살이 되었습니다. 안을 줄만 알았던 30대가 왔고 시간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24살까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프로팀에도 입단했고 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방출당했고 그 후 꿈을 접고 학교 선배와 같이 일을 시작했고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에 아니 욕심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주변의 '투자를 받았고 이 일로 인해 그동안의 신뢰도 무너지고 제 인생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그동안 내가 이득을 취하게 해줬는데 설마 신고하고 그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치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고, 구속이 되어서도 '에이, 살고 나가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고 반성은 커녕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판장에 피해자분들이 한두명씩 오셔서 본인들의 사정을 이야기 하시는데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 했습니다. 저도 잘될 땐 좋다고만 생각했지 안되니 제 개인적인 사정만 생각했고, 저라는 인간만 믿고 그동안 아끼며 모으고 모은 돈을 저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는데 저는 나몰라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로 인해 이득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신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드실지 제가 감히 그 마음을 다 헤아릴순 없지만 이곳에 구속되어 자유를 잃고 생각도

---

많이 하다보니 살면서 했던, 해오던 모든 일과 행동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았고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 이 마음과 이 글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를 한다고 용서받지 못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벌 받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자분들께 갚아가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일로 제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돌이킬수도 없고 신뢰는 당연히 밑바닥이고 진심으로 반성도 사죄도 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신뢰는 다시 100프로 회복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빚을 갚아가면서 살고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늦게 깨닫고 그동안 회피했던 제게 아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항상 무엇이든 잘하고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뉘우치고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됨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저보다 약하다고 비웃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 몸을 낮추고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이 끝이될지언정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제 가족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모든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평 :** 주식투자를 남의 돈을 끌어들이어 하는 것은 씬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가져다줄 때보다 손해를 끼칠 때가 더 많습니다. 남의 돈을 내가 맡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빌려준 이는 아이의 등록금일 수도 있고 아픈 아내의 입원비일 수도 있습니다. 운이 나빠 손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그 피해액은 훗날이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30대 초반이면 아직 인생이 구만리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베풀면서 사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 용서



이상봉

용서라는 두 글자는 나의 무책임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있기를 염원하는 조심스러운 두 글씨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 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노발대발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가면 경찰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저는 모른다 생각이 전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의 아내는 여보 ○○ 아빠 왜 그랬어! 응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며 눈시울을 훔치며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며 돌아갔고 저는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 엄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 엄마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다. 정말이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해 봤지만, 아내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몸이나 건강하게 잘 살아 그 후 연락을 끊고 이혼까지 원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용서해 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착하다 착한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기에 저는 목놓아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가슴이 찢겨나가고 피를 토해내는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도 술을 마셔도 필름이 끊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술만 먹으면 어느 시점부터 아무 생각이 나지

---

않아 답답함은 물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착하고 예쁜 아내 ○○ 엄마.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빕니다. 입에 담기도 싫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남이 되어 인연은 끊겼지만, 부디 못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다만 나의 진심은 아니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다시 한번 더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위에 글 전 1992년도에 서울에서 잘나가는 중국집 주방장이었고, 돈을 좀벌어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건물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는 말을 듣고 이층집 그 집을 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부족하여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고, 어머님께서 저의 이복형제들과 살고 계셨는데, 의붓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던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찾아가서 사실 이래저래 해서 제가 사는 집을 판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골에 있는 땅을 좀 팔아서 줄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땅은 저의 이복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미안하지만 줄 수가 없다. 저는 어머님께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챙겨주고 보살펴 주겠노라고 말씀을 드려봤지만, 어머님께서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님을 미워했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중국집을 오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여 집을 살 돈을 마련했는데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너무 늦어서 수술할 수도 없을 만큼 전이가 되어 남은 시간이 3개월뿐이라고 서울 ○○○병원에서 판정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치료도 소용없고 진통제를 주는데 그것이 마약입니다.

어머님께서 병원에 있기가 싫으니 집으로 가지겠다고 또 병원에서도 약을 드릴 테니 집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싶다고 하여 제가 사는 전셋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님을 드시고 싶으신 것 또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대접을 해 드리고, 저는 시간이 없으므로 누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어머님,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도나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누님하고 ○○도를 갔다 오셨습니다.

---

## 용서

---

하루하루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어머님 해외여행 한 번 더 갔다 오시지요.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싫어서 안 가고 싶구나! 저와 누님은 어머님이 아플 때마다 약을 드시고 또 누님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 오는데 약은 점점 더 많아지고 독한 약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더니 큼지막한 지갑에서 땅문서를 꺼내시어 이것은 네 앞으로 된 땅이고 이것은 네 동생들 앞으로 해 놓았으니 내가 죽으면 네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네가 엄마한테 돈 얘기했을 때 못 해줘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엄마를 꼭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엄마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엄마를 원망도 했었고 미워도 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께 불효자식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나 어머님께 효도 한번 못해 드리고 엄마를 미워했던 저의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 한없이 울고 또 울었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미워했던 마음을 어찌하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 죄송하고 못난 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히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말이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작품평 :**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케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글입니다. 잘되는 중국집의 주방장을 하면서 돈을 꽤 벌었다면, 결혼해서 아이까지 두었다면 무어 부러울 게 있습니까. 아내가 “왜 그랬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고요. 어머니께 땅을 팔아 달라고 떼를 쓰는 추태를 연출했군요. 어머니 임종의 자리에서 받은 땅문서를 잘 다뤄 재기했다라면 아내와 재결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새롭게 출발하기 바랍니다. 아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말입니다.

## 용서를 구합니다



박호현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 헤어진 친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다투었고 친아버지는 저희를 학대하셨습니다. 그 학대의 트라우마로 저희 형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친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혼자서 저희 형제를 키우기 힘들어 외할머니 집으로 저희 형제를 보내셨고 그렇게 저와 동생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속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이 짧은 글로는 다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청소년기의 방향을 뒤로하고 공장에 들어가 나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당시 여자 친구와 함께 살았는데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사랑해도 미성년자와 함께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였습니다.

결국 무지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지금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거치고 이곳에 이르기까지도 제 범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절규가 들어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제가 출소 후 열심히 살며 갚아나갈 수 있겠지만 저의 범죄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다시는 과거가 기억되지 않도록 잊혀진 사람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는

## 용서를 구합니다

---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나마 저로부터 받은 상처 잘 아물어 잇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힘들게 키우신 할머니 지금 병상에 있는 어머니... 이분들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항상 제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저의 잘못에서 항상 따뜻하게 전화받아 주시고 걱정하시며 너무나 어려운 살림에도 영치금을 꼬박꼬박 넣어주시는 이분들께 저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하는지... 다시는 이런 일로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직장인으로 따뜻하게 다정하게 함께 식사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전에 이곳에서 아프지 않고 문제없이 생활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을 뵈는 것이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철저히 잊혀질 것, 그리고 장남으로 장손으로 제대로 역할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밥 꼭꼭 씹어먹고 방에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하고 문안인사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동생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작품명 :**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어머니는 떠났고 두 형제는 외할머니의 밑에서 자랐군요. 어머니는 지금 병상에 계시다고요. 다행히도 외할머니 어머니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호현 님의 출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문제가 된 동거했던 아가씨도 어른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도 검정고시 등 자격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출소 이후를 잘 대비해 나오기 바랍니다. 인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주고 때로는 상도 줍니다. 해낼 수 있다고 늘 다짐하기 바랍니다.

---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 봄비

이공성

봄비는  
겨울에 내린다.

겨울에 내린 봄비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는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  
조용히 선언한다.

그렇게  
겨울이 죽었다.

나의 봄이 시작되었다

**작품평 :** 봄비가 겨울에 내린다는 시행 앞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비에게는 겨울과 봄의 경계가 없겠지요. 어느 순간에도 비는 오고, 봄은 겨울을 양분 삼아 자라고 있음을 생각해봅니다. 살아야 한다는 빗소리. 봄은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봄은 겨울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새겨봅니다.





시

# 무지개종묘사



박정주

내일이라는 이름은  
더 새롭게 그려질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일까요?  
농약과 씨앗을 팔던 우리 가게에서는  
여동생이 태어난 때가 되면  
오늘도 어제처럼 계절의 이름을 부르며  
파랗게 떠오르는 곡선들이 생겨나요  
노랑고 붉은, 초록과 보라의  
곡선과 곡선들

그러면 나는  
까치발로 창밖을 보던 여동생의 손을 잡고  
가게로 나서는데요

비가 오진 않았어도  
햇빛은 색색의 농약병들을 넘나들며  
펼쳐내고 펼쳐내요  
종묘사에서는 이 빛줄기 씨앗도 파는 걸까요?  
아마도 이걸 누나도 모를 거예요

색 끝에 색이 달리고  
그곳에 발을 담근 여동생이  
색색의 양말을 신게 되면  
밭밑의 반짝이는 모래알도  
하나의 씨앗이 된답니다

그럼 나의 손가락을 잡고 즐거워하는,  
열 밤이 가장 많은 숫자인 줄 아는 이 아이를  
나는 삼십 분 동안  
안아 주겠어요

하루가 다 가고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되면  
나는 떨어뜨린 것이 없는지 살펴보지만  
너무 작은 씨앗들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무지개의 씨앗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농약병들만이 계절의 색을 품고  
가게의 무늬가 될 뿐 이예요

자꾸만 무언가가 피어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진마세요  
피어나는 것들이 그려지는 우리 가게는  
무지개 종묘사이니까요

**작품평:** 작은 씨앗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린 알 수 없지요. 하늘과 바람과 소나기와 함께 무지개도 들어있겠습니다. 자연의 씨앗에서 곡선들이 생겨난다는 표현, 색 끝에 색이 달리고 모래알도 씨앗이 된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열 밤이 가장 많은 숫자인 줄 아는 아이를 안아주겠다는 마음에 그만 행복해지고 맙니다.



어릴 적  
농친  
풍선

유승화



포근한 햇살  
나를 가두는 그림자  
방 바닥에 드리워지네  
햇살 맞으며 하늘 하늘 자유롭던 먼지  
그림자 위 살포시 내려 앉네

철창 너머 담 너머 저 하늘로  
날아오른 풍선 바라보며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간 그곳에서  
내 고향 보이냐고 소리쳐 보네

풍선이 내게 소리치네  
저기 저 빌라를 가득한  
거미줄처럼 엉킨 전기줄 아래  
아이들의 웃음 강물 흐르듯 흐르는  
저곳이 맞냐고

추억이 내게 소리치네  
달빛도 보이지 않는  
구름 낀 밤하늘 아래  
수많은 노란 빛 별들을  
강아지 주인 반기듯 반기는  
나방들 가득한 저곳 아래  
손잡고 걸어가며  
사람의 리듬에 몰입한 학생 둘 걸어나는  
저곳이 맞냐고

그리움이 내게 갈망하네  
푸른 빛 아침  
방문 밖으로 들려오는 도마 소리는  
김치찌개 향기 가져오고  
푸쉬- 하며  
집안 가득 울려 퍼진 소리는  
잠든 내 머리 속에  
모락모락 김나는 잠곡밥 떠오르게 하는  
저곳이 맞냐고

어느새 사라져 버린 풍선의 외침  
메아리 되어 울려 퍼져  
첫 눈 오듯 훑날리는 민들레 씨앗  
나를 가두는 그림자 드리워진 햇살 아래  
어느새 하나 날라와  
살포시 내려 앉네

**작품평:** 우리에게 저마다의 풍선이 있었지요. 농친 것이 더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풍선을 띄우고 고향의 모습을 전해 듣는 시인의 마음이 잘 읽히는 시편입니다. 어릴 적 풍경이 세밀화처럼 그려지는 걸 보면 먼지인 듯 민들레 홀씨인 듯 봄 햇살에 설핏 보이는 그곳이 고향 맞겠지요.



# 호박꽃

정정식

소박하고 얇전한  
고향 아줌마

이른 아침 골목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우리사이  
이게 인정이라 일러 줍니다

이른 아침부터 웃는 얼굴로  
허기진 벌들을 받아주는 그 품속을  
진정 사랑이라 일러 줍니다

하늘을 꽃피우다 지더라도  
해거름에 군말 없이 입 다물고 마는  
이게 진정 꽃이라 일러 줍니다

한없이 푸짐한 열매 맺고자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이 뜻을  
그가 지닌 심성이라 고백합니다

**작품명:** 호박꽃은 사랑의 향기라는 꽃말이 있어요. 꽃 진 자리에 맷히고, 차오르던 호박은 조출한 밥상에 자주 오르던 식재료였지요. 고향 어귀 지천에 피던 꽃, 순수한 우리 꽃 아니겠는지요. 해거름에 군말 없이 입 다무는 꽃, 인생도 해거름엔 침묵할 줄 아는 것이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해준 시편입니다.



당  
장  
이  
라  
도

양희원

작은 창문 넘어  
흘날리던 눈꽃에  
시선이 머물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 올 것만 같다는  
우리 엄마 손편지에

지그시 눈을 감아  
창문을 넘어선다.

눈꽃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흐트러져 녹아 사라진다.

당장이라도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녹음이 고갤 내밀 것 같다.

울음이 빵을 적시고  
눈꽃은 녹아내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이 밝아진다.

하얗게 차갑던  
눈꽃 뒤로하고

화려하게 하얀  
벚꽃이 흘날린다.

당장이라도 저문 넘어  
우리 엄마 팔 발려  
기다릴 것 같다.

우리집 앞마당  
내 키 훌적 넘은  
벚꽃나무 아래서...

**작품명:** 눈꽃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라진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짧은 것인지요. 계절 중에 가장 짧은 계절이 봄이지만 꽃들의 시간은 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봄은 영원하지 않아서, 벚꽃나무 아래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간절함이 잘 보입니다.



# 해, 바 라 기

이  
호  
문



곱디 고운 얼굴  
그리움 덕지덕지 묻히고  
남우세스러운 줄도 모르고 무엇을  
그리 냐 놓고 보고 계시는지요

살랑거리는 바람  
어깨를 내어주어도 못 본 척  
얼굴을 쓰다듬는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무엇을 그리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요

‘화무십일홍’

열흘 붉은 꽃 없다 했거늘  
열흘 하고도 하루가 지났음에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대는  
꽃입니까 꽃이 아닙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전하는 마음  
무수히 많은 배움을 통해 익혀왔지만  
앓과 행함은 다르더군요

한결같은 마음을 이고 산다는 게  
가능하리라곤 꿈엔들 상상했겠습니까마는  
그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그대  
우리가 아닌 그대

오로지 그대로만 점철 되어버린 그림 속 어귀  
날카롭고 보족한 무언가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결국

고갤 떨구게 될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대는

꽃입니까 꽃이 아닙니까

**작품평:** 지지 않는 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뿐  
이겠지요. 다 주어도 준 것으로 행복한 누군가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축복은 없겠지요. 영원한  
건 없지만 순간순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  
있다는 것. 봄에 피는 꽃은 잎보다 먼저 피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폭죽처럼 터지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 행복한 바둑

구자광

떨리는 손을 참아가며  
서늘한 돌 하나 꾸욱 눌러놓는다

유리한 형세에 흥이 넘쳐  
춤을 추듯 사뿐히 돌 하나 놓는다

숨통을 조여오는 준엄한 급소 공격에  
온 몸이 열꽃으로 울그락불그락

승부를 결정하는 신의 한 수에  
심장이 튀어나오고 머리에서 땀이  
경고음이 울린다

영혼까지 다 갈아넣은 인생 대국  
기분좋은 녹초가 되고  
허기가 밀려온다

물입의 극치 끝에  
깊이 솟구치는 희열  
오늘도 행복한 바둑으로  
인생을 배운다

**작품평 :** 바둑판 위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지요. 돌 하나 하나는 집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급소를 공격하고 공격받기도 하는 대국. 삶이란 게 한 수 한 수 신중해야 하는 자신과의 한 판 대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어서 바둑의 묘미와 수에서도 공부할 것이 많겠습니다.



봄  
나  
그  
네박  
재  
수

양상한 나뭇가지 북풍에 슬피 울고  
추운 겨울 이겨내고 봄별이 그리운데  
부영새 구슬픔에 적막 산중 깊어 간다

봄 나그네 깊은 시름 산새인들 어찌알까  
골짜기 물 흐르는 소리도 구 슬프다  
새벽길 재촉하는 봄 나그네 숨 가쁘다

인고의 엄동설한 지나가고 남풍 불면  
진노랑 민들레는 춘풍에 춤을 추며  
희망가 노래하는 봄 나그네 얼씨구나

**작품평** : 깊은 산사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같이 시의 흐름이 좋습니다. 봄별에도 적막 산중 깊어간다는 쓸쓸한 마음은 봄이 와도 아득합니다. 새벽에 길을 나서는 나그네의 심정을 누가 알겠는지요. 그러나 봄처럼 다시 오는 돌아오는 희망이 있으니 봄은 봄을 몰고 오는 전령사가 아닐런지요.





# 민들레

추진아

밟아주오 뿌리내리지 못한 흔들리는 몸뚱아리  
흘려주오 터뜨리지 못해 멈춰버린 설운 눈물

그대의 싱그런 눈물 내 가슴에 파고들어  
찬란한 생명의 움을 눈뜨게 해주오

서슬푸른 바람에 몸을 맡겨 사뿐사뿐 날아와  
먼 길 떠나는 나그네의 삶을 지그시 바라봐주오

모두 외면하고 업신여기는 삭막한 언저리 보금자리  
그대 바라보는 눈을 보며 웃음꽃 피우렵니다  
짓밟히고 꺾여도 다시 일어서 꽃을 피우렵니다

**작품평 :** 민들레는 생명력이 깊은 꽃입니다. 낮은 곳, 험한 곳에서도 곳곳이 주어진 자신을 피웁니다. 그래서 좋은 약재로도 쓰이나 봄니다. 흠씨를 날려보내는 민들레의 희망은 봄의 성품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흔하다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꽃이지만 민들레는 민들레로써 자신을 다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 봄의 바위 되어

김포연

한겨울 뽕뽕 열고 숨었던 바위도  
봄과 함께 녹으며 자신을 뽏내고  
만물이 소생하듯 우뚝 선 바위에 봄이 오면  
이 겨울 버터낸 자신이 뿌듯하듯 더 굳세 보이네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봄날의 따스함  
쭈고 얼어붙었던 생명에 온기를 주기에  
이 봄을 기다려 선 채로 돌이 되었는가?  
봄에 올 입을 기다려 우뚝 선 바위가 되었는가?

계절의 변화에 바뀌는 모습들  
언제나 한 자세의 바위는 변함없는 절개인 듯  
모든 날 봄과 같다면 바위도 따뜻하게 입을 맞으리  
추운 겨울이 있기에 봄의 바위는 더욱더 웅장한 것이야.

세상 풍파 이겨낸 바위도 봄이 오면 따뜻해 지리라.

**작품명 :** 더위도 추위도 내색 없는 바위도 계절을 타나 봄니다.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바위도 봄날의 따스함에는 어쩔 수 없게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부드러워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위 같은 사람의 마음도 그럴겠지요. 추운 겨울을 보낸 바위의 봄이 더 웅장한 것이란 문장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 『천원을 경영하라』 를 읽고

이정승



“흠수저였던 내가, 아니 흠수저 정도가 아니라 무수저로 남들이 다 퇴직하는 마흔다섯 살에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 저자 박정부

저는 21년도에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입니다. 구속되기 전 책과는 거리도 멀고, 글 쓰는 일 또한 어색했던 저는 교도소라는 곳에 수감되는 동시에 책과 사랑에 빠지며 1년여가량의 시간 동안 100권이 넘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지나오며 여러 번 '새길'에 독후감을 적어 제출해 보려 했지만, 그 정도의 애정과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 없었습니다. 불과 제가 '천원을 경영하라'라는 책을 덮은 30분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000'라는 매장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000'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000'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견 기업이자 '1,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해서 '3조'의 매출을 경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민 가게입니다. '천원을 경영하라'의 저자 박정부 회장님께서서는 45세의 나이에 무역업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1,500여 매장을 직영 또는 가맹으로 운영하고 있는 '000'의 창업주이자 회장님이십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 ○○○’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개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본질만 남기고 다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 ○○○’의 운영 전략을 소개하며, 세 번째 파트에서는 ‘천 원짜리 품질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박정부 회장님 본인의 경영 철학과 전략을 담아냈습니다.

첫 파트에서는 박 회장님의 사업 시작 단계의 두려움, 어려움과 함께 희망을 보는 시각을 다루며 책을 읽는 저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독자들에게 따끔한 채찍질과 함께 달콤한 꿈을 주셨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다 구속이 되어 꿈을 잃어 가고, 희망을 잃어 가는 재소자분들에게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도, 늦은 나이일지언정 수많은 노력과 남들을 앞지르는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단 ‘1,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해서도 3조 원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운영 방식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선 여러 가지 방면의 사업이 가능하고 구속되어 있어서 사회와 단절이 된 저에게도 또 다른 방식의 사업 구상과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말들과 운영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회장님 본인의 경영철학을 토대로 쓴소리와 함께 경영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속 전 작게나마 무역업을 진행해 오던 저에게는 일명 뼈 때리는 조언을 읽고 반성하였고, 제가 출소하여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사업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다시금 되새기며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될 철학과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수많은 책을 뒤로 하고 독후감을 작성할 책으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새길’에서 이 독후감을 읽고 계실 여러분께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출소를 2~3년 이내로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가서 뭐해 먹고 살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 책에서 박정부 회장님께서 45세 나이에 퇴직하고 시작한 사업을 시작으로 성공하신 만큼, 지나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고 어떤 일이든 노력과 열정만 갖춰줘 있다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하시게 되어 꿈과 희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부 회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는 “토막같이 일하지 마라. 영혼 없이 일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멈추면 실행 할 수 없고 실행 할 수 없으면 개선도 되지 않으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되어 있던 이유 하나만으로 꿈을 저버리고 희망을 놓고 좌절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다시 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이곳에서 개선이 되어 나가 출소 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남은 기간에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나아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기회가 닿으신다면 꼭 ‘천원을 경영하라’라는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며 이 글을 통해 저자 박정부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품명 :** 100권 이상의 책 중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었는데 귀가 솔깃해집니다. 저자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하는 도입부, 세 파트로 나누어진 내용을 함축해서 잘 소개해 준 본문, 추천 이유와 미칠 영향까지 믿음으로 다가온 독후감입니다.



#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회계책』을 읽고

민경근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저 역시 이곳에 들어온 이후 한 동안 실의에 찬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감내해야 했던 고통 역시 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범을 어기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던 가족들이었기에 그 고통과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저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럼에도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었고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곳에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찾아 계획을 세웠으며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학사로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여 어지러웠던 제 마음을 다잡는 것이었고 사회 복귀 후 새로운 삶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무역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했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최대한 자격시험 공부를 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 독학사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부담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학이었습니다. 경영학 독학사 시험에는 회계원리 부터 원가회계, 재무회계 등 회계학은 필수이고, 관세사 시험도 1차 시험에서 회계학이 과목으로 되어 있어, 이 회계학의

장벽을 넘는 것은 저에게 필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꺼운 기본서 여러 권을 사서 시도하였지만 전체적인 회계의 개념이 없던 저에게는 바로 이 책들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고민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여동생이 하얀색 표지의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회계학”이라는, 회계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풀어 쓴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도, 한편의 기대를 가지고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었습니다. 권재희 회계사가 쓴 이 책은 저와 같이 회계의 기초적 지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 회계의 기본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회계의 간단한 개념들을 조금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인류 역사 속 회계의 등장

중세 유럽, 이탈리아의 해양도시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무기나 식료품을 대여해 주고, 병력을 운송해 주기도 하며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중세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돈과 관련된 측정 도구인 회계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당시 상업과 무역업에 자본을 투자한 왕족과 귀족 거상들은 자신들의 이익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투자의 반대급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원했고 이로 인해 이익과 자신의 계산 방법도 명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발전하였고, 루카 파치올리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 복식부기가 집대성되어 오늘날 회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분개, 총계정원장에 전기, 시산표 작성 등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회계의 순환과정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11세기에서 13세기 초반 개성상인들이 사개송도치부법이라고 하는 복식부기를 이미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는 유럽보다 200년 앞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루카 파치올리가 1494년에 복식부기에 대한 책을 최초로 저술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최초의 관련 책 저술은 그보다 한참 늦은 1916년 헌병주 선생이 위에 언급한 사개송도치부법의 복식부기 해설한 책을 펴낸 것이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기에 회계학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은 이 루카 파치올리에게 있다고 하며, 이 점에 대하여 회계사인 저자는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 2. 회계의 종류 - 회계는 그 목적에 따라 아래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만,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채권자, 주주, 정부 등)은 내부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정보의 불평 등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바로 이 재무회계입니다. 흔히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고 불리며, 당연히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계라하면 바로 이 재무회계입니다.

### 관리회계

말 그대로 관리를 위한 회계입니다. 경영진 등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자가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기에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고 불리우며, 회사별, 부서별 특성에 따라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고 감사 역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가추정, 계획수립, 성과평가, 손익분기 분석 등이 모두 관리회계의 영역입니다.

### 원가회계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재무회계에 대한 보조적인 회계이면서 관리회계의 한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도움을 주는 회계로 설명하곤 합니다.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재고자산원가, 매출원가 등의 원가 정보가 모두 원가회계를 통해 산출이 되니,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세무회계

세법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제한을 가하기도 하므로, 회사와 관련된 숫자를 기록하는 방법이 재무회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로 숫자를 집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부회계

정부는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위해 돈을 씁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정부 맞춤형 회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회계입니다. 정부회계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면서 발생한 숫자를 정리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들은 책의 극히 일부의 내용들로서 이외에도 많은 회계적인 개념들이 쉽고 상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 회계 관련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책을

마친 뒤 회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을 수 있었고, 그 뒤 가족들이 보내어준 회계 관련 기본서들을 초급, 중급부터 공부하면서 회계학에 대한 저의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5월 26일 경영학과 독학사 2차 시험 때 회계 원리 등 회계 관련 과목들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고, 지금 3차 시험에서 치루는 재무회계와 재무관리론 역시 큰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사 1차 시험의 4과목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였던 회계학은 이제 저에게 전략과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았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기억이 납니다. 그 곳에서 안영이라는 여직원에게 회계 팀장은 회계학을 꼭 배우라는 권고를 하면서, “회계학은 경영의 언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회계학에 대해 부족하나마 기초를 잡아가는 지금에는 그 말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회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각자의 사업을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회계학을 배운다면 경제를 보는 눈과 자신의 업무 능력을 한 단계 상승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계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되, 시작이 다소 부담되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에 제가 소개한 이 책을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작품평 :** 회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해 주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원도 회계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독학사 2차 시험에 합격했고 3차 시험에서도 무난히 합격할거라 믿어요. 난이도가 높은 회계학이 전략과목이 되었다니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를 읽고

이태희



제 전생이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사에 이토록 서툰 리가 없죠. 오죽 못났으면 교도소까지 오는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요즘 소설들에 유행하는 소재처럼 인생 2회차, 3회차로 회귀하거나 다시 환생하지 않는 이상, 죽는 날까지 후회 공장을 풀가동하며 살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제목만 들어도 따스한 위로가 되는 책이 많이 출간되는 것을 보면요. 그중에 한권을 골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나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책이 바로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 였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에서 ‘한입 심리학’을 진행하는 조지선 박사님이 펴냈습니다. 심리학 전공에 유튜브버라 그런지 소통하는 방법을 잘 하시는군요. 쉽고 재미있게 읽히도록 쓰셨습니다. 글자만 딱 찬 책을 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귀여운 카툰을 곁들이는 센스가 돋보였고, 하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생각 포인트’라는 요약 코너를 배치하는 배려도 좋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면 노트에 메모를 합니다. 보통 한 페이지 정도 적곤 하는데,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는 무려 네 페이지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만큼 곱씹어 생각하고 싶은 훌륭한

내용이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메모 중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레놀 실험입니다.

한 연구진이 조사결과, 타이레놀을 복용한 그룹이 아닌 그룹보다 마음의 고통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마음과 신체의 고통 모두 뇌의 동일한 부위에서 관장하기 때문이랍니다. 연인과 헤어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실제로 살이 찢어지는 물리적인 고통과 동일한 기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심리적 아픔을 그저 마음먹기에 달렸거나 의지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신 과학은 말합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ですよ.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에 좋은 습관을 되찾아야 마음도 안정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를 펴고 다니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연구결과 당당한 자세를 취했을 때 의사결정에서 큰 결단력을 발휘하며,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미 잘난 사람이라서 당당한 자세가 나오는 건지, 당당한 자세를 취해서 성공하는 것인지 너무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과학을 믿고 어깨만 펴면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는 명언이 있죠. 저는 낙관론자가 되보렵니다. 책을 믿구요.

세 번째로 인상적인 내용은 흰곰 생각하기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흰곰 생각하지 않기 과제에 도전해 보라. 그러면 그 저주 받은 녀석은 매 순간 네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심리학자 대니얼 웨그너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A 그룹에는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B 그룹에는 “흰 곰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흰 곰이 떠오를 때 마다 벨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A 그룹의 벨이 실 새 없이 울렸답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하면 더 하고 싶었던 건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성향이라는 얘기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원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학창시절 짝사랑 고백할 때 “나 좀 생각해주라”보다는 “날 생각조차 하지 말라구!”라고 외쳤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조지선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힘들 일과 후회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만 생각해야지’라며 자신을 다그치기 보다는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 보라고 말이죠. 저를 힘들게 하는 생각 몇 가지를 떨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습관을 똑딱 만들기입니다.

습관이란 제목이 붙은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봐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원하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5개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노력 금지, 2. 30초 초과금지, 3. 고통 금지, 4. 하루 한 번 이상만, 5. 행동과 연결하기.

저는 운동을 미루다 못해 숨쉬기 운동까지 미룰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자 마음먹고 미니습관을 짰습니다. 출역장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 자세를 한번 추가했습니다. 5가지 원칙에 맞게 노력과 고통이 없고 딱 3초면 가능합니다. 필수 행동과 연결했기 때문에 깜빡했던 핑계도 댈 수 없죠. 이 간단한 루틴 덕분에 매일 스쿼 200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니습관이지만 이렇게 몇 개만 더 습관을 추가한다면 인생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심리학 독학 학위제를 공부 중인 제게 특히 흥미로웠고, 위로심리학, 행복심리학, 공감심리학, 성공심리학, 습관심리학의 다섯개의 장으로 나눠서 읽는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는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여러 수용자분들과 후기를 나누고 싶은 ‘뭇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를 추천해 봅니다.

**작품평 :**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처음일 거라는 글 도입이 재미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메모를 네가지로 잘 정리하여 소개해 주어서 쉽게 이해가 되고요. 미니습관으로 매일 스쿼 200개를 한다니 대단한 실천이네요. 인생도 변화시키는 시발점에 함께 동참하시지요.

# 『커피인문학』

## 을 읽고

변재현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신의 도구’로써 커피를 바라보는 새로운 커피인문학이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다. 사실 이교도의 음료라고 배척 받았던 커피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의 도구라고 바뀌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는 가히 ‘신이 내린 축복이고, 고단함을 순식간에 날려주는 데 이만한 게 없고, 향기만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 맛을 따라가며 즐기는 경지에 다가가면 커피와 함께 깊은 명상에 빠져들 수 있으니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악마의 음료’라는 말까지 듣고, 피테에게 음흉한 물질을 숨기고 있다는 질책까지 받았던 커피는 유럽 열강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식민지에서 강제노역으로 커피를 통해 막대한 부를 챙기면서 착취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커피는 은총과는 거리가 멀다는 눈총을 받지만 반전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회 수사들이 식민지 지배로 인해 굶주림과 공포에 떨던 사람을 오지까지 찾아가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커피가 있어 가능했다. 언뜻 커피의 전파 경로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침략 루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헤아려 보면 커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신의 도구’였다.

현재는 콜롬비아가 커피로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기 초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던 콜롬비아 원주민에게 희망을 준 인물이 예수회 소속의 프란치스코 로메로 신부이다. 커피는 원주민에게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유돈을 만들어 준 ‘희망의 작목’이었다.

하지만 씨앗을 심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커피 농사를 꺼렸고 4년간 수확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로메로 신부는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물량 부족으로 커피 가격이 폭등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커피 농사가 고달픈 원주민의 삶을 해결해 줄 것이라 확신을 하였고 그는 고해성사를 활용해서 죄를 고백하는 원주민에게 죄를 사해주는 대신으로(보속) 커피 묘목을 심도록 하였고 세례를 받은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커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자, 대주교는 다른 지역의 신부들에게도 이를 권하면서 예수회 차원에서 커피나무 심기가 운동처럼 번져나갔고 콜롬비아를 커피 대국으로 성장케 한 원동력은 ‘가톨릭의 신앙심’이었다.

이 덕분에 콜롬비아 커피에는 ‘신이 빚어낸 커피’라는 수사가 따른다. 하와이 코나 커피는 미국 선교사 사무엘 러글스가 아니었으면 세계 최고의 커피 산지가 될 수 없었고 그는 목숨을 걸고 파도를 헤쳐 오아후섬을 수십 차례 오가며 꺾꽂이로 코나 커피나무를 키워냈다.

1750년 과테말라에도 커피 씨앗을 처음 들고 들어간 인물들이 예수회 선교사들이었고, 미얀마 최대 커피 산지인 핀올라 산속을 찾아가 손수 아라비카 품종 재배법을 가르쳐 준 스승이 카톨릭 선교사들이었다.

조선에는 철종 때에 커피가 선교의 도구로 활용했던 단서가 나왔다. 제4대 조선대 목구장을 지낸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시메온 프랑수아 베르뇌 주교가 1860년 3월 6일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가 있던 홍콩의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 “커피 20kg(생두로 추정)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베르뇌 주교는 이듬해 9월에도 커피 25kg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고 1863년 11월에는 요구량이 50kg으로 늘어났다. 혼자 마시기에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커피를 최초로 마신

조선인은 고종이 아니라 철종 시대에 베르뇌 주교를 돕던 천주교 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간 353잔으로 세계평균(132잔)의 2.7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커피 수입액은 한 해 5~6조 가량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사랑의 기저에는 신의 따뜻한 사랑이 감돌고 있다 여겨지면서 꼭 박영순의 「커피인문학」을 읽어보면 커피에 대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기에 이렇게 소개의 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품평 :** 새길은 글 솜씨를 뽐내어 1등을 선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섯 편의 독후감으로 책을 추천한 따뜻한 마음이 큰 것이지요. 진정성 있는 글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싶어지네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 『더 해빙』을 읽고

박현준



이름은 이서윤. 마음가짐의 대가, 통찰력의 여왕, 비저너리인 치프... 모두 그녀에게 붙은 별칭이었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양 여성인 서윤을 향해 서양인들은 구루(guru)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곤 했다.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경애와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서윤이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일곱 살 때부터였다. 이른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십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면서 통찰의 폭을 넓혀 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기업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점프를 이루어 냈다.

서윤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 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 중국 상인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의 사주를 보는 관례가 있었고, 그렇게 익힌 운명학으로 손주의 운명을 살피던 중 할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손녀 서윤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지원과 서윤의 신념으로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으로 살게 된다.

이 책은 홍주연이라는 작가가 이서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having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다. 홍주연은 채장암에 걸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기 위해 이서윤을 찾아 나선다.

having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고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having에도 신호등이 있다. 돈을 쓰는 순간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느껴지면 초록불이 되고, 그 순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명품이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분명 그건 빨간불이고, 낭비이고, 사치가 되는 것이다. having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고 그 답은 자신이 알고 행동하면 된다.

불안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해도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안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그대로 두고 영혼이 이끄는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 올 수 있다.

having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고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는 마음이 생긴다. having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고,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하다.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진다.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에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을 한다. 그럼 결국 having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었다. 나는 지금 내 현재가 많이 두렵고 겁이 난다. 징역을 살고 있는 지금보다 아무것도 없는 내 현재가 두렵고, 출소 후 다시 시작해야하는 현실이 무섭고, 지난 날의 가지고 있던 허황된 욕심들이 다시 나에게 손짓할까 겁이 난다. 하지만 분명 이 책에 적혀 있는 글이 내 마음을 단단히 잡아 주었다.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두려움이 없고 끝이 좋을 수 밖에 없다.”

출소를 기다리는 내 마음의 믿음과 확신, 내가 하고자 하는 올바른 생각과 선택이 어긋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다시 시작해도 그 끝은 좋을 수 밖에 없다고 믿어보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다. 아들 둘이 있는 어머니가 있다. 큰 아들은 소금 장수이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이다. 이 어머니는 매일이 아들 걱정이다. 비가 오면 소금 장수 아들의 소금이 녹을까 걱정이고 날이 맑으면 우산을 팔지 못하는 우산 장수 아들 걱정뿐이다.

having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꿔 보았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아 즐겁고 맑은 날에는 큰 아들의 소금이 잘 팔려서 즐겁다고 생각하니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인 것 같다.

가족의 숨결이 그리운 지금, 내 목표는 몸 건강히 출소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출소 후 가족과 함께 만족이라는 사치를 누리려고 싶다.

**작품평** : having의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알려주고 그 답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래요.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과 확신이라네요.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 책을 대변하고 있네요. 가까운 날에 만족이라는 사치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

“독후감” 부분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 내려놓는 삶

허상실

저는 2020년 3년형을 받고 수용생활을 하다가 2022년 6월 8월의 가석방을 받고 출소를 하였지만 현재 추가 사건으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되어 현재는 재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석방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지만 남편에게는 저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고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저는 이렇게 구속이 되었고 남편은 저의 구속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였고 남편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남편에게 이혼을 원했지만 바보같이 착한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터넷서신을 쓰고 저의 잘못 또한 당신의 잘못이라며 재판부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늘 혼자라 버려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금의 삶을 세상을 원망하기에 바빴고 모든걸 남의 탓으로 돌리기 바빴고 숨기기에 바빴던 삶을 살았습니다. 3년이라는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며 저는 모든 걸 인정한다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회로 나가고 싶은 마음에 보여지는 것에만 중요했던 거짓된 생활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지금의 저의생활에 많은 반성과 교훈이 되는거 같아서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2년하고 4개월을 일하면서 배우면서 저에게 들려온 가석방이라는 소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지금 또 저에게 가석방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저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막상 8개월 가석방을 받고 나가보니 세상은 변했고 저는 또다시 세상을 원망하기 바꿨고 추가사건으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되며 지금은 재판중이지만 전 당당히 이야기 할수 있는 후회와 반성이 저의 인생의 길에 나침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무조건 사회에 나가기만하면 그러면 모든걸 바꿀수 있고 사건이 있기 전보다 더 잘살 수 있고 이곳에서 살았던 게 있으니 무엇이든 잘하고 잘될꺼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리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도 저에게는 욕심과 교만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 잘할꺼 같고 잘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모든걸 이루고 지키려면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모른다면 언젠가는 똑같은 걸로 저는 그렇게 지름길만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만 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원망하고 남의 탓만하고 살꺼라는 것어요.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전과자라고 욕하겠지만 전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낳은 5명의 아이와 남편과의 재혼하며 가슴으로 낳은 아이까지 모두 6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하고 더는 전과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거짓된 삶이 아닌 인정하며 내려 놓을 수 있는 반듯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남은 형기와 남은 재판에 성실한 모습으로 두번 다시 부끄러운 아내도 엄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품평 :** 나를 내려놓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고백처럼 거짓된 생활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성찰의 자세가 돋보이는 우수작입니다.

# 인사 = 감사

김유리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한두 마디의 아름다운 말을 건넬 수 있으면서도 그 말을 아끼는 것은 마치 초가 아까워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제게 늘 하신 말씀은 ‘공부해라’가 아닌 ‘인사를 잘해야 한다’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뇌가 스펀지라고들 하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부모님의 말이기에 저는 그대로 따랐고 시간이 지나고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느새 몸에 배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인사는 어떠한 절망도, 부정적인 면도 없는 희망이고 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감사는 인사이고, 사랑이고,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엔 제 경험이 있기에 저는 공감할 수 있었고, 감사하는 자체도 어렵지만 ‘제대로’ 감사하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꼭 입으로 말해야 어느나고 하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모든 감정들은 말로 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는 모든 감정이 들어있고, 인사는 내 입 밖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거였습니다. ‘인사성이 밝다’는 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감사쓰기 공모전’을 통해 제대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이토록 벅차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이기에 너무나 진심으로 이 공모전이 열렸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당선된 건



아니지만 100가지씩 감사할 대상이 열명이나 있었고 그럼에도 1000 감사를 직접 손으로 쓰고 적어보면서, 매일 5감사를 적으면서 생각만 하고 스치기만 할 수 있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서 또 한번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남들과 조금은 다른 시간속에서 살고 있기에 평소보다 멀찍이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배우고....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달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품평 :** 감사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랑과 희망의 불씨입니다. 100가지 감사의 대상을 찾아 직접 손으로 써보는 일, 혹은 매일 5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일입니다. 인사는 감사와 동급입니다. 인사와 감사를 등식으로 표현한 작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 그립다 쓱국아, 쓱떡아

송현윤

한 손엔 백순이를 데리고 또 한손엔 커다란 바구니와 칼을 쟁긴다. 봄내음 가득한 4월의 ○○산은 신록이 푸르름으로 온 사방이 녹색물결의 향연이다. 등산객들, 상춘객들을 맞이하여 장사하는 ○○산 상가 사람들 나는 2018년도부터 수양부모님으로 모시는 분들 가게에서 일을 돕는다.

백순이는 태어난 지 한달만에 ○○도에서 입양온 귀여운 믹스견이다. 우리 가게의 마스코트이자 손님들 최고 인기쟁이를 데리고 나는 산으로 간다.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메뉴인 산채비빔밥과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시래기 쓱국을 준비하기 위해 쓱을 캐러간다. 백순이는 등산과 동시에 자연을 만끽하여 돌아다니고 나는 바구니 한가득 쓱을 담는다.

○○산 청정지역의 쓱이 시래깃국속에 들어가면 국물은 끝내준다. 1시간 캐고나면 바구니 한가득 봄향기 가득히 머리에 이고 백순이를 부른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닦고 백순이가 집으로 이끄는 걸 잡아 도착하면 얻이는 바구니를 받아 TV를 보시며 추리신다. 그렇게 나와 얻니, 그리고 백순이의 노력 끝에 쓱들은 맛있는 국과 찹쌀을 만나 쓱떡으로 태어난다. 손님들은 그렇게 맛있게 드신다. 나와 백순이는 흐뭇해한다.



절망에 빠진 나를 보고 어머니는 특명을 내리셨다. 썩을 캐서 냉동실에 가득 보관하라는 말씀. 나의 구속기간 동안에 쓰시고 남은 만큼 엄청난 썩을 캐서 삶고 찌서 냉동실에 보관해 드렸다. 봄내 가득한 ○○산엔 이젠 내가 없다. 나는 이곳에서 쫓값 달게 받고 내년 봄에 달려 갈 것이다. 백순이가 꼬리치며 나를 반기겠지….

아마도 어머니가 가장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썩넣은 시래깃국과 썩떡을 찌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웠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지금의 나는 가슴으로 느낀다. 냉동실에서 썩을 꺼내 국을 끓이시며 못난아들 그리워 하셨을 가슴앓이를… 내년 봄이 그리워진다. 한 손에 바구니 들고 백순이는 나를 이끌고 썩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작품평 :** 고향의 정경을 썩국과 썩떡이라는 토속적인 음식을 통해 잘 표현했습니다. ○○산 신록과 커다란 바구니에 썩을 캐는 광경이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향의 백구도 평화로운 시골 정서에 중요한 소재입니다. 서경적 소재와 그리움의 정서가 조화를 이루는 우수작입니다.

---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 정민 교수의 세설신어 400선 『점검』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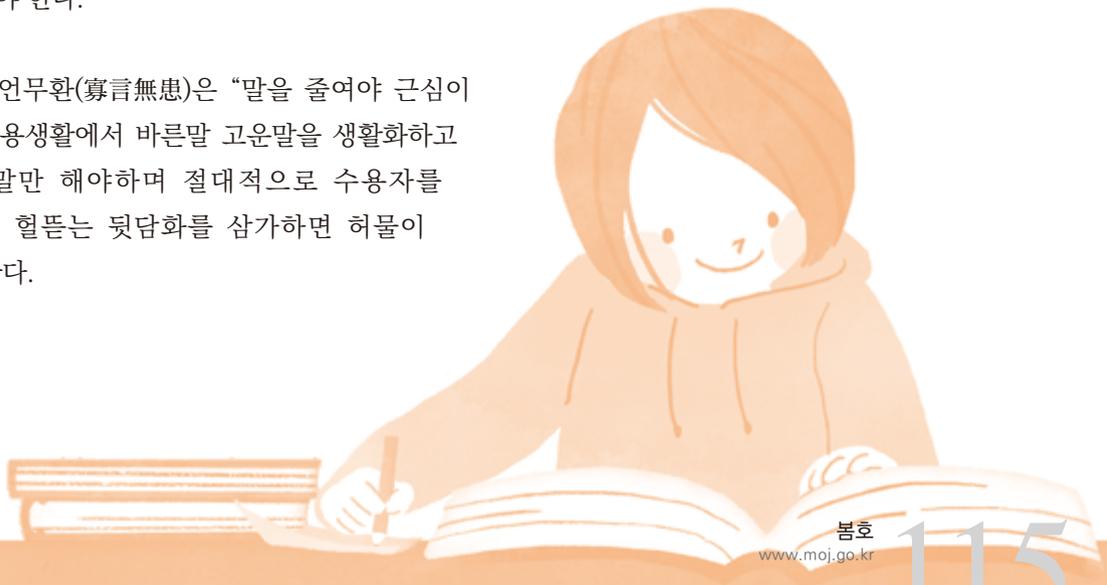
임동표

정민 교수의 『점검』을 읽고 4년의 수용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책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고 몸가짐을 돌아보며, 생각을 들여다보고 깊이 반성하여 바른 아버지로 멋진 남편으로 살아가야 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점검』은 날날이 검사한다는 뜻이다. 책 내용 중에서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이곳 수용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핵심 세설신어 12선의 소개와 느낌, 감상을 적어 본다.

1선 덕근복당(德近福堂)은 “역경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감옥을 ‘복당’이라고 하는것은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면 착하게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힘에서 상장의 동력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2선 과언무환(寡言無患)은 “말을 줄여야 근심이 없다.” 수용생활에서 바른말 고운말을 생활화하고 필요한 말만 해야하며 절대적으로 수용자를 모함하고 헐뜯는 뒷담화를 삼가하면 허물이 없다고 한다.



3선 자모인모(自侮人侮)는 “허물이 있어도 고치면 귀하다” 인생을 살면서 과도한 욕심으로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앞으로 귀하게 살아갈수 있다.

4선 웨인칠단(毀人七端)은 “남을 헐뜯는 일곱가지 단서” 수용생활에서 동료를 비방하려고 잘못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보태며, 거짓으로 증거대고, 동료의 좋은 점을 깎아내려,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면 스스로 뒷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원만한 수용생활이 힘들게 된다.

5선 무료불평(無聊不平)은 “불평을 돌려 창조적 에너지로” 수용생활은 즐길만한 일이 적고 자신의 뜻대로 되는것이 없기에 무료불평에 빠지기 마련이다. 무료불평은 건강한 창작 활동의 원천이기에 창조적 에너지로 쏟아부을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수용생활 중 시, 소설, 에세이, 붓글씨 쓰기 등에 노력한다.

6선 습인책노(習忍責怒)는 “인내와 용서로 분노를 끄자” 수용생활 자체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소한 일로 수용자 간에 싸우고 분노하는 환경에 있기에 스스로를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7선 양생칠결(養生七訣)은 “건강한 삶을 가꾸는 일곱가지 비결” 수용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잘 해야하고 말을 적게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욕망을 억제하고 생각을 아낀다. 건강은 수용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8선 감인세계(堪忍世界)는 “참고 견대며 건너간다” 영어의 몸이 된 상황에서는 못 견딜 일도 묵묵히 감내하고, 하고 싶은 말도 머금고 삼켜야 한다.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교도소 생활도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연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9선 일언방담(一言放談)은 “한마디 말의 향기”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수용생활 중 따뜻한 말을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수용자의 신상을 농담삼아 얘기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0선 평생출처(平生出處)는 “시련과 역경 속에 본바탕이 드러난다” 수용생활은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채찍의 시간이 되어 정신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야지 좌절하고 주저앉고 마는 사람이 되면 안된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기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11선 방유일순(謗油一脣)은 “비방은 한사람의 입을 통해 온다” 비방은 한 사람의 입만으로도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견잡을 수가 없다. 수용생활에서 특히 비방을 삼가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2선 명계양지(冥契陽贊)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생을 살면서 보이지 않게 덕을 쌓으면 하늘은 드러난 보답으로 되돌려 준다. 어렵고 힘든 수용생활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좋은 마음을 갖고 생활하면 좋은 일은 찾아온다.

『점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 지금의 수용생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작품평 :** 앞만 보고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던데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었다는 건 다행인 일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적잖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씩 실천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 교육 소감문



김금섭

나는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어쩌다 이곳에 들어 왔고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을 해 버렸다. 더 이상 이곳의 선입견이나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았고 겁이 없어진 나는 사회에 나가서 별 달고 나온 게 뭐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다 이곳에 들어오기를 수차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20대 초에 시작된 이곳의 시간이... 휴~~ 너무도 많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이번 사건이 있고 수감되어 꽤나 전과가 있는 나는 이곳에서도 겁 없는 행동을 하다가 두 번 조사 징벌을 받았고 이후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못한 삶을 살고 있나, 도대체 지금 내 나이에 내가 지난 시간 해 놓은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씁쓸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또 사회에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내 또래 친구들을 새삼 생각하게 됐고 순간 나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됐다.

깨달았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을 늦게나마 알게 됐다. 무언가 해보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여기서 무엇이랄도 배워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난 당시 4급이었고 교육생 신청조차 안 됐기에 일단 일을 하며 착실히 때를 기다렸다. 기다림에 때가 왔고 난 ○○에 타일 직업훈련을 받게 됐다.

난 목표가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훈련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반장에게 부탁했다. 한 번만 더 해보게 해 달라고 했고 장갑을 낀 손으로 타일 붙이는 게 감각이 둔해서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하다가 손이며 손톱이 다 갈라지기도 했었다. 그런 내 열정에 같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열심히 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 열심히 한 것은 아니지만 뿌듯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나는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동안 살면서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게 있었던가? 가슴 한가득 보람이 밀려왔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다. 늦기는 했지만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만 산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 나를 위해. 이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서 김금섭 올림

**작품평 :** 스스로 깨닫는 힘은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습득한 타일기술로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적응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소감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딸에게

정영일



아빠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유치원 다니며 원복 입고 학예회 초대장 만들고 공연 따라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졸업식에 중학교 입학이라니... 지난 세월이 참 야속하기만 하구나. 아빠와의 많은 추억이 없어 야속한 시간이지만 아빠가 자초하여 생긴 일이라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네. 물론 그 야속한 시간 동안 의미 없는 시간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이곳 교정시설에서 아빠가 저지른 죄의 죄값을 받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우리 딸 ○○이도 엄마 옆에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든 시간들 보내느라 마음고생이 크다는 걸 아빠도 잘 알고 있어. 때로는 아빠가 그리울 때도... 때로는 아빠가 많이 미울 때도 있었겠지? 그래도 투정 한번 하지 않고 엄마 곁에서 잘 자라주고 있는 우리 ○○이가 너무나도 대견스러워.

얼마 전 ○○이와의 전화통화 때 “아빠~나 초등학교 졸업식 2월 10일인데... 올 수 있어?”라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에 가슴이 울컥거리며 정말 많은 것들을 그 순간에 느꼈어... 아빠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정시설에 있는지... 주위 눈치로 알면서도 모른 척, 아빠가 직접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이의 목소리... 이야기 해줘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입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직까지도 이야기 할 자신이 없네. 앞으로도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아빠이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빠가 다 설명하고 사과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할게. 아빠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줘.

2016년 가을에 ‘가족사랑캠프’라는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빠와 손잡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으로 유대감 쌓으며 재미있게 놀았던 시간들 기억나? 아빠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네…. 그때가 아빠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하네…. 물론 그 때 그 이후로 ‘가족만남의 날’이나 ‘접견’ 등으로 수시로 얼굴을 마주 할 수 있었지만…. 계속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허전함, 공허함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을 거야. 그렇지만 아빠가 곁에 있던 6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을 모범생으로 생활해준 우리 ○○이에게 아주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우리 가족의 ‘합체’를 위해 아빠가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약속할게.

아빠가 저지른 모든 잘못은 평생을 반성하며 지난 날의 과오들 후회하며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리라 약속할게. 지금은 비록 제한되어 있는 ‘접견’과 ‘전화통화’지만 이 또한 아빠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더욱더 노력할게. 아빠는 사랑하는 우리 ○○이가 있기에 힘이 난다.

그리고 전화통화 끝날 즈음에 항상 “아빠, 사랑해”라고 불러주고 전화통화를 마무리 하는 딸…. 그 한마디가 아빠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희망이 생겨나는 것 같아. 항상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다며 응원해 주는 딸….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딸.

**작품평 :** ‘아빠, 사랑해’는 주저앉고 싶을 때 한 방울의 물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지요. 어렸던 딸이 성장하여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이라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아빠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사랑함을 알지요. 따님 졸업을 축하드려요.



# 보고 싶은 아버지



## 아버지

유난히도 무더웠던 2021년의 여름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슬픈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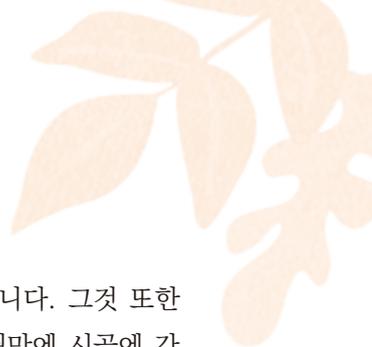
불러보고 들어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 고이는 그 이름... 자식된 도리로서 매번 불효만 하고 있는 현재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미워지기만 합니다.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1983년의 겨울, 저는 돌이 갓 지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인신 아버지, 남들이 보기엔 외소한 체구에 굽어진 다리가 한없이 애처러워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버팀목이셨고 울타리셨습니다. 성인이 되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큰 버팀목이셨던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겉으로 늘 강인한 인상만 보이시고 따뜻한 말씀 한번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명절때마다 장거리 운전해서 오는 절, 몇시간 동안이나 어두컴컴한 도로가에서 기다리셨던 아버지...

첫 손녀를 안으시고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던 아버지...

이 모든 기억들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눈앞을 지나가지만, 다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슬픈 현실에 저의 눈에선 눈물이 떨어집니다.



작년 여름,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치매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못한 아들 걱정할까봐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6개월만에 시골에 간 저는 너무나도 야위어버리신 아버지의 모습에 또 한번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억너머 항상 듬직해 보이셨던 아버지...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무더운 여름 대·소변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누워계신 너무나도 말라보린 아버지만 보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몇 달 목욕탕에 못 가신 아버지를 모시고, 읍내에 있는 작은 목욕탕에 갔습니다. 40여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처음으로 가는 목욕탕... 제 마음 한구석에서 지금껏 이런 사소한 효도마저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얇디얇은 팔의 때를 밀면서, 이 팔로 힘든 농사를 지으시며 절 키워주셨구나, 또 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다리의 때를 밀면서 이 다리고 논밭을 누비시며, 절 키워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는 액체가 제 얼굴을 타고 아버지의 다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저희 세 식구는 이제는 다시 함께 할 수 없는 외식을 하였습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그 흔한 자장면 한 그릇도 맘 놓고 못 드셨던 아버지... 절반도 못 드신 자장면을 뒤로 한 채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로 당신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드셨다면 자장면... 그게 제 기억 속 아버지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외식이 있고 다음날, 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되지 않아 뵈지도 못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국에 돈 벌러 간 줄로 알고 계십니다.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가지만 가끔씩 웃는 얼굴로 꿈속에서 절 안아주십니다.

출소 후엔 지금까지 못해드렸던 효도를 늦었지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취침등을 이불삼아 꿈속에서 만날 아버지를 그리며 잠을 청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2021년 여름, 제 기억속의 슬픈 드라마였습니다.

**작품평 :** 아버지와 추억이 목욕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기억되네요. 몸을 닦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서로 마주하며 펼쳐진 삶을 함께하기 때문일 거예요. 꿈속에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와 제일 맛있게 드셨다는 자장면을 그해 여름같이 꼭 다시 드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

“서간문” 부분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

##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홍가람

어느덧 2023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헤아려보니 저의 수용 생활도 만 4년을 딱 채워가고 있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접하게 된 새길지도 10여권을 넘어 갑니다. 4년 전, 구치소에서 처음 새길지를 펼쳐 봤을 때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전부터 소설이나 산문을 좋아했던 편이라 단행본은 물론 여러 문학잡지를 정기 구독하기도 하고, 서점에서 새로운 문학잡지를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에 지갑 여는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 작품평

새길지를 기다리는 이유가 '공감'과 '위로'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글쓰기라는 말도 이 글을 읽는 동료들한테 잘 전달될 거라 믿어요. 많은 분들의 글을 '만남의 장소'에서 기다릴게요.

시중에 출간되는 문학잡지에는 주로 등단한 작가들의 글이 실리기 마련인데, 새길지에 실린 글들이 어느 등단 작가들이 쓴 글에 뒤지지 않는 양질의 글이라 꽤 놀랐었습니다. 저는 새길지에 실린 글들을 음미하며 점차 빠져들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몇 차례 투고한 글이 실리는 영광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온 몸으로 느껴질 즈음이면, '새로운 새길지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어떤 글들을 만나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이번 2022년 새길지 겨울호를 읽으면서 제가 새길지를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머리 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는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에 있는 이들도, 두메산골 ○○에 있는 이들도, 각자 지내는 곳은 다르지만 서로가 느끼고 체험하는 정역살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는 모두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어, 건강하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이 시간은 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빛을 갠기 위해 나가서 열심히 살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때로는 무릎을 탁 치며 ‘공감’하고, 한 줄의 글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기에 내가 그토록 새길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빵’을 주제로 그리운 가족을 떠올리며, 아름답고 따뜻한 언어로 빛어낸 시와 수필을 읽으며 저 또한 모락모락 김이 나는 호빵과 그 호빵을 함께 즐기고 싶은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장과 교육장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성취감을 맛 보는 모습을 통해 저 또한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끼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을 새로 다졌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글을 읽으며 저 또한 지난 행동을 다시 한 번 후회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후감을 읽고 난 후, 관물대에 한 권에 꽂혀 있는 『한비자』를 다시 꺼내어 며칠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이번 호 새길지의 남은 페이지가 점점 줄어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읽어가는 중에 큰 공감과 위로를 받게 된 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오창근님께서 쓰신 「어머니의 노래를 따라서」입니다. 오창근님의 어머니께서 하신 당부 말씀을 읽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기도해라’, ‘할 일이 생기거든 먼저 나서서 해라’, ‘매일 짧게라도 빼먹지 말고 운동 하거라’ 등등.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생 제게 해오신 말씀이자, 제가 한 번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말씀이지요.

저 또한 오창근님처럼 이곳에 오고 나서야 그동안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들을

##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살았으면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을 겪을 일은 없었겠지요. 가끔 접견실 얇은 유리 벽 너머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얼핏 노인의 모습이 보여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서 속절없이 먹어가는 제 나이만 아쉬워하다가 어머니께서 나이 들어가시는 것이 떠올라 눈물이 차오릅니다.

글을 읽는 내내 오창근님의 어머니가 곧 저희 어머니이고, 저희 어머니가 곧 오창근님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옆에 있는 동료의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겠지요. 그래서 주변 동료의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리가 들리면 저희 부모님께서 아프신 것 마냥 마음이 아프고, 속히 쾌차하시기를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곳의 우리 모두는, 20대 동생들이든 60대 형님들이든 각자 부모님 눈에는 물가에 내 놓은 철부지이며, 한없이 안타까운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뒤에서 모든 바람을 막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새길지에서 또 한 번의 큰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여권의 새로운 새길지를 만난 후에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데 새길지가 제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저 또한 혹시나 제가 쓴 글이 한 줄이라도 동료들의 공감을 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한 글이지만 새길지에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글쓰기라고 합니다. 글을 잘 쓰는지 여부, 어떤 글을 쓰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글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혼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글쓰기를 마치고 나면 '성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새길지를 통해 동료들의 글에 공감하시고,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시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길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우리의 '만남의 장소'이니깐요.

## ‘새길’ 겨울호를 읽고

조성신

### 작품평

호빵이 불러온 추억들이 따뜻하네요. 각 꼭지에 대한 감상과 비유도 좋습니다. 새길을 읽는 동안에는 솔직해질 수 있더니 얼마나 좋은 책인지 궁금해져요. 작은 빵 하나가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주듯이 새길 또한 그런 존재랍니다.

유난히 일찍 추위가 찾아왔던 올 겨울, 날이 풀려 몸이 따뜻해질 무렵 제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새길지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번 새길 겨울호의 주제는 호빵인데 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만큼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겨울만 되면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꼭 야채빵을 사오셨던 할머니,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고생한다며 호빵을 사다주셨던 사장님, 지난 크리스마스 특식으로 나왔던 호빵을 방 사람들과 먹은 것 등까지 가까운 과거로, 먼 과거로 추억여행을 떠나며 행복을 느껴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일상생활의 소중함이 이제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수필이나 수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이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겨울호에는 특히나 작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흔해 당연하게 여겼던 종이봉투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만든다는 것을 알고는 꽤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작업을 하며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이 또한 교도소가 목적으로 하는 교화의 일부분임을 깨닫습니다.

용서의 글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잘못을 하여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 ‘새길’ 겨울호를 읽고

반성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반성의 부족함에 대해 깨닫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하지만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출소 후 나아가야 할 새길의 끝에는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의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 해보자라는 다짐을 해 봅니다.

구속이 된 후 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 늘어난 저에게 독후감 부분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책의 대략적인 내용들만 소개하는 신문, 잡지 등과 달리, 직접 읽어본 사람이 쓰는 후기는 무척이나 생생하여 마치 제가 그 책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그런 느낌 속에서 어느새 저만의 도서관바구니에 또 한 권의 책이 추가가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길을 읽는 동안에는 잠깐이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 피해자분께 상처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길로 절대 빠지지 않고 올바른 새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 새길에는 언제나 ‘새길지’가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새길’을 읽는 모든 분들이 꽃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

“감상문” 부분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

